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月刊雜誌『朝光』) (同『女性』) (同『少年』)

金鶴香油

政府의決意闡明할 地方長官會議遂開會

二十二日首相官邸에서

【東京電話同盟】長期戰時體制에 處할 近衛內閣의決意를 徹底히 闡明할 緊急地方長官會議는 二十日 午前九時五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政府側으로부터 近衛首相、末次內相其他 各閣僚 瀧企畫院總裁 風見書記官長 船田法制局長官 地方側으로부터 石黑北海道、館東京外各府縣知事(玉田香川病欠、稻垣總務部長代) 阿倍警視總監、藤江憲兵司令官參集하야 먼저 近衛首相으로부터 支那事變의 新事態에即應할 帝國政府의 强硬決意를披瀝하고 長期戰時體制에處할 擧國一致의强化를 强調하야 時局의 再確認을 要望한重要訓示를 行하고 同十五分近衛首相以下 各地方長官 警視總監 憲兵司令官一齊히參內、西溜間에서 天皇陛下께拜謁、御前을 退下 同十時廿分 內相官邸參集、末次內相으로부터 銃後內政의强化 擧國一致 熱血一丸으로되여 時艱克服에 邁進하도록 一層奮起를 要望하는 訓示를 行한다음 瀧企畫院總裁로부터 現下物資需給調節에關한 重要訓示가잇섯고 國家總動員計畫을 爲始하야 內務行政에 對하야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遂하고 正午 會議를 終了하엿다

그다음 一同은首相官邸에잇서서의近衛首相招待의 午餐會에臨하야 午後一時半一齊히 明治神宮、靖國神社에 參拜하야 國運의 隆盛을 祈願하얏다 그리고 午後三時부터 文相官邸에 參集 木戶厚生相으로부터 地方의 軍事扶助其他諸般軍事援護事業을奬上할것에 對하야 各地方長官으로부터 地方別의 實情을 說明하고 今後의 方策에對하야 여러가지 協議를行하고 午後六時부터 內相官邸에 內相招待晩餐會에臨한後 다시 厚生省關係事項에對하야 懇談 當日로써 會議를終了하게 되얏다

政府政黨各派 對議會策整備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三議會再開議會를 압페두고 政府는 二十日午前九時부터 首相官邸에 緊急地方長官會議를 開하고 長期戰爭의 體制를 强化하고 嚮者發表된 對支聲明의 主旨를 全國民에 徹底시키여 擧國一致時艱克服에 一路邁進할것을 要望한後 다시 午後一時半부터 臨時閣議를開하고 議會再開劈頭의衆兩院에서 行할首相、外相演說草稿를 決定한後 國力充實四個年計畫案에對하야 討議를거듭하고 現內閣의 政策大綱을 決定하는 一方 民政、政友、社大、第一、東方、國盟의政黨各派또各其黨大會或은 議員總會를開하고 事變下의 重大議會에臨할 陣容을整備하야 二十二日의 議會再開를 기달리게되엿다

長期戰에對備次

擧國一致協力再次强調

近衛首相訓示要旨

【東京電話同盟】二十日 地方長官會議에서行한 近衛首相의 訓示要旨는 如左하다 今回會議에 諸君의 會同을煩거러히한것은 今回의 事變에 處하야 我帝國政府의 邁進할 第二段의 결음을 明白히하야全國民이 그目的에 向하야 一致協力 東亞永遠의 平和와國運의 躍進에 獻身할 覺悟를더욱 更新하기爲하야 諸君에게 더욱큰努力을 求하고저 함에잇다 事變發生以來 帝國은 過去半歲에 亘하야 膺懲의師를 前進하는一方 南京占領後에도 더욱 國民政府에對하야 反省할 最後의 機會를 與하야 彼가從來의 態度를一擲함을 期待하고 今回에이르른것이다 그러데 國民政府는 秋毫도 我眞意를 解치못하고 또 獨逸國의 好意的 斡旋等에도 귀를기우리지안코 最近益益聯蘇容共態度를 露骨化하고 또列國의 援助를 期待하야 支那民衆을 塗炭의 苦에陷入하며 國家를 焦土化하는 犧牲에曝露되여잇스면서도 長期抗戰의 自棄的態度를 取하고잇다 따러帝國은 如斯한 蔣政權과그軍隊에對하야 繼續攻擊을加하는 同時에今後에잇서 更生한 國民政府를 相對로하지안코 眞實로帝國의 立場을 認識하야充分히 아와提携할수잇는 新興支那政權의 成立을 期待하고 여를育成發展시켜 여와提携하야兩國의 國交를 調整하고更生新支那의 建設에 協力하려는態度를 確立하야 이를中外에明示한것이다 그러나 帝國의列國에對한態度는 從來와다름이업을것이나 我公正한 態度를 認識치안코 敢히 抗日勢力을 煽動支援하야 東亞의危局을 增大시키려는者에對하야는 그認識을 是正하는 同時에 我聖業에 協力하려는者에對하야는 前進하야 提携하야서 東亞永遠의 平和建設에邁進하려는者이다 回顧컨대 事變發生以來 皇軍將兵의 忠勇은 진실로 感激不已어다 또 日復日 昂揚하는 銃後의 赤誠에對하야도 무어여라 感謝할말이업다 這間에잇서 各位의 心勞도적지안흘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事態가 上述한바와가티된 今日 全國民은 더욱 非常한 覺悟로써 今後如何한 艱難 如何한事態에 直面하더라도 여를 克服하야써 大國民인 氣魄을示하야 國力의總力을 動

轉換期의統治方針

② 物的動員은全面的으로進展

洪 鍾 仁

國家總動員計畫下에 展開된 朝鮮의 物的動員은 아래의몃가지 階段을 갈러볼수가엿다 勿論日本資本主義의 發展ㅣ國力發展의 最大의表現으로서의 併合事情은 말할것도업고 그며에 進展된 內鮮經濟關係는 一部朝鮮滿洲經營을 爲한資本의移植 內地에로의 物資補給과 商品市場으로서의 任務가大部分의것이엇섯다고 볼것으로日本內地의 國民經濟를 土臺로한國家的指導가 잇섯든程度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 今次의 國家總動員은 國內問題로서의 所謂『經濟國難』의 打開라든가 하는데서 出發된것이 아니고 對外的인 國際情勢의轉變即極東政局이 列强角逐의 縮圖로 緊迫하야짐에따라 보다더 國防經濟에 全力을集中치안흐면아니될事情에 切迫하엿슴에 特殊한關係가엿다고할것이다 本來 日本經濟의 運命的條件은 輸出國으로서 資源의缺乏이란것이 都大體國防問題解決에最大의 難點으로되여잇는것임은 더말할것도업다.

여기에 滿洲事變을 契機로 國防經濟의 動員은 急角度로 轉換하엿슴을볼수잇고 從來 大滿洲經營을 企劃하면서 朝鮮의地位가 輕視되든것이 內地의 政治家, 資本家들이여금 새삼스러히 重視하게된것이니 어는 地理的關係에서 重視되엿다는것보다도 鑛、工、農產의 諸物資가 豊富하다는 點에서 事業地로서 注目이커젓다 當局者로서의 朝鮮開發을 爲한 資本과 技術의 誘致策은 同時에 國防政策에 進行한것이엇슴은 勿論이나 아직은 그出發이 基礎的이엿슴에 不過하엿섯다고 볼수엿스니 宇垣總督時代가 곳 그時代라 할것이고 그다음의 現 南總督赴任으로 國防經濟의 物的動員은 極東政勢의 激變이 一層緊하여지게된것에따라 一層 그意義와 計畫이 强化된것이다

南總督은 赴任後 不言實行의 政治家的 모랄미러『鮮滿一如』『內鮮一體』를 强調하며 어느듯 產業經濟調査會를 開催하엿다

內鮮滿의 官民權威者七十餘名을 招致한大會同은 實로歷史的大事實이엇든것이다 日滿을通한 經濟의 再檢討를 前提한朝鮮經濟의 再認識이요 朝鮮의物的國防動員의集約的再强化이엇든것이다 이會同의 大評定은 이미널리紹介된바 新大陸政策下의動員基地임을 直接間接으로 說示하엿든것이다 即農工併進策工業資源開發을 爲하야 時急히行하여 主된目標가되어 當局의 政策은 이에 主力을 傾注하게되엿다 大產金政策의 稻稻한進展은 國際爲替市場의 確保를 爲한 金準備의前提로 產金量을 增加시키는데 잇어서 全日本的重責을 지게되고 重產物 電力의開發大工場의 誘致、鐵道、港灣等交通上 大動脈의 整備等은 모다 戰時動員의 體制下에 進行을 보게된것이엇다 重工業地帶로서의 改備가 올것도 머지안흔것일것이다

그것이 다시支那事變에 際하야 意義가 더深化되고 잇는것이니 長期戰의準備는 單純히國民政府의 長期抗戰에 應한다는것만에 意義가 잇는것이아니라 새로운 大陸經營의 發展에따라 極東을 中心한日本의對外關係는 압흐로 더욱 緊張性을 가지게된다는데 오히려 要點이크다고 볼것이고 여기에 朝鮮의國防上動員도 그自體에잇서서 責任이 다시重大化하게된것이다 昭和十三年度總督府豫算을 一瞥하야 곳 알수 잇는것은 中央의方針에 順應하야 모든 施設은 時局一色으로 平和時代의 計畫은大部分延期를 免치못하고 戰時對備의 施設計畫이主로되엿슴을 볼것이다 朝鮮의 物的動員은 어에 本軌道에 서다고볼것이요 今後經濟의 繼移도 오로지 어點에 表現될것이다

官民各代表會招集

時局認識再强化

南總督施政方針闡明

帝國의 對支根本方針에 對한重大聲明에 依하야 今後의事態는 長期膺懲態勢에 드러가益益擧國一致時艱克服의必要에 切迫되게되엿스므로 昨十九日歸任한南總督은 全半島民의 時局認識을기피하는同時에 內鮮一體로되여 銃後의防護를 鞏固히하고저官民各方面의 積極的協力을 求하기로되여 來二十二日午前午後에亘하야 總督府에 各代表者의參集을求하야 總督이 스스로 過般政府로부터發表된 帝國의確固不動不退轉의 對支根本方針과 今後의事態에對하야 詳細히 說明하고懇談을 遂하기로決定 二十日이旨를 各道知事及 當日 參集의 各代表者에 通達하엿다 即 二十二日 午前九時半부터 總督府의 各局課長을 爲始하야 同十時부터 各道知事及 中樞院과 朝鮮人有力者와 三回에 分하야 또午後에는 新聞言論界及 財界의 代表者를 各其別個의으로總督府에 招致하야 總督으로부터 時局에對한協力을 求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各道知事는 右總督의 主旨를體하야 即日 任地에도러가 管下官民에 傳達하야 本格的으로 時艱克服에 邁進하기로되엿다 (寫眞은 南總督)

民政黨大會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再開議會에 臨하야 黨의 態度를 闡明하기 爲하야 廿日午前十時부터 上野精養軒에서 所屬兩院議員과 評議員의 聯合會를 開하고 뒤니여 午後一時부터 黨大會를 開하고 町田總裁 永井遞相 櫻內其他各院內外總務 小泉幹事長賴母木顧問櫻井政調會長以下 所屬兩院議員 黨員 各府縣代議員等 三千餘名出席하야 君代合唱 勅語奉讀後 小泉幹事長開會의 人事를 述한後 議長에 賴母木桂吉氏를 推하고 最上政三氏로부터 黨務報告가잇섯고 議事에 드러가 宣言決議其他를 可決한다음 町田總裁이러서서 演說을하야 支那事變에際하야 舉黨政府에 協力하야 所期의目的을達成키爲하야 邁進할決意를 披瀝하고 兼하야 戰後經營에關하야政黨의 使命이 重大性하다는것을 力說、黨員을 激勵하고祝辭祝電의披露가잇섯고 天皇皇后兩陛下의 萬歲를 奉唱한後 民政黨萬歲를三唱 同四時閉會 繼續하야 町田總裁의 招待會에 臨하얏다

南總督 小磯司令官訪問

南總督은 二十日朝各局長의事務報告를聽取한後 午前十一時軍司令部에 小磯軍司令官을 訪問하고 歸京人事를行한後 志願兵制度其他渡東要務、半島今後의時局對策에對하야 種種懇談을遂하고 同十一時半辭去하엿다

銘酒 菊松 キクマツ

日支和平斡旋에對해 獨政府聲明發表

"日本政府의重大聲明發表로 紛爭은新段階에轉入"

【伯林十九日發同盟特派員】我外務當局은 日支紛爭에對한 獨逸政府의好意的和平斡旋이 國民政府의不遜한態度로 마침내 水泡에歸하고 帝國政府가 去十六日 重大聲明을 發表하기까지의 交涉經過에對하야 發表하엿든데獨逸政府도 어에呼應하야 十九日午前DNB通信社를通하야 次와如히 發表하엿다

獨逸國南京 東京兩駐劄大使는 昨年十月下旬 日支紛爭에關하야 支那政府에서 事變을解決케 爲하야 獨逸의協力을 希望하고잇는 事實을 確認하고極東平和의 確保를 念願하는 獨逸政府는 이結果 同時目的을 貫徹키爲하야 日支兩友好國에 對하야 斡旋의勞를 取하기로 決定하엿스나 獨逸은 事變에 對하야 中立的態度를 嚴守하고잇는關係上 兩國間의意思傳達을 仲介함에 끈칠밧게업는 事情을 充分認識하고 今日까지 兩國間에 仲介의勞를 取하여온것이다 그런데 一月十六日의 日本政府의 發表에依하야 日支間의 紛爭은 新段階에 드러간것을 獨政府는玆에 聲明한다

數日中에歸國할 川越大使時局談

【上海十九日發同盟】我國民政府默殺聲明에伴하야 川越大使撤回命令은 十九日午前에 川越大使에게 到着하엿스므로 同大使는數日中에連絡船으로 上海를撤退하야 東京으로 도라가게되엿다 그리고 日高參事官 以下의 館員은모두 上海에 殘留할豫定이어다 川越大使는 十九日午後大使館事務所에서 左와가티 말하엿다

今日 本省으로부터 電報를바덧는데 數日中에 [illegible]이다 自己가 歸京한後에 代理大使를 設置하리라는것은 國民政府를 相對로하기爲하여서는 勿論아니다 上海의事務는總領事의 管轄範圍에 局限되여잇스나 中支에서는 列國과의 關係가 複雜하야 第三國에對한 外交의 事務를 處理하기爲하야 日高參事官以下 大使館員을 上海에 駐在케하야 둔다는 意味요 日前의 聲明에 依하야 벌써 帝國政府의 對支政策이 一大 轉換을보인以上 今後 如何한種類의 交涉이라도 帝國政府와國民政府와의 間에 行할餘地는 업다 十六日의聲明은 이意味에서 極히 重大意義를가진다 따러서 萬若將來에 國民政府가 그態度를 完全히고쳐는일이잇드라도 그는 新興政府와의 間의 問題요 日本政府가 關與할 問題는아니다 新政權의樹立은 近近 中支에도 具體化할것이나 어는勿論 支那民衆의 間에서 自然히 이러날것으로 이點에對하야는 上海支那人의 間에도 一日이라도 빨리 新政府를 組織하야 事變前의 經濟狀態에 復歸하고 십다는 熱烈한 希望이잇는模樣이다 그러나 上海方面은大體로 事變前의 狀態에 復歸한다는것이 主眼임에 對하야 北支方面은 어로부터 新生面이開拓된다는 意味에서 보담 큰 光明이 엿다고 할것이다 何如튼 日本政府는 只今 新轉換期에 드러가는것이다

時事解說

米國의大建艦計畫

今年에 드러오자 各國의 建艦競爭은 一層 激化하야 이미 伊太利는 三萬五千噸級 主力艦二隻을 建造를 計畫하고 英國은 主力艦五隻을、佛國은四萬二千噸級 主力艦二隻을 建造하기로 發表하엿거니와 此際 루즈벨트大統領은 突然 議會에 特別敎書를 發하야 (今廿日에 [illegible]) 大建艦計畫을 實現하려하고잇다。이는 所謂 빈슨、투랩멜 五個年建艦案을 修正하야 去五日의 豫算敎書에 指示한 五億七千四百萬弗의 豫算으로된合二十二隻의 新建艦計畫以外에 또다시 主力艦、航空母艦、甲乙級巡洋艦、驅逐艦、潛水艦等을 包含한 約四十隻、條約量 二割超過、實로 百五十萬噸의 新艦建造와 海軍航空隊 二割增加를 即時 要求하는것으로 方今 一大센세이슌을 惹起하고잇다。

○

米國의 大建艦計畫의 첫재 理由는 各國의 軍備擴張競爭에오、둘재理由는 國際政情不安이오、셋재理由는 國內經濟對策이다。

各國의 軍備擴張에 對하야 가장 重視되는것은 英國의大海軍擴張이다。米國은 一九二一年의 華盛頓條約과 一九三〇年의 倫敦條約에依하야 主力艦、補助艦에 다 對英均等權을 獲得하야 英米均勢는 不動의 原則으로 되어잇는바 어均勢關係上 英國의 海軍擴張은 即時 米國에 至大한 影響을 주게된것이다。더욱 日本의 海軍條約廢棄와 一九三六年의 倫敦海軍條約에 對한 日本의 不參加는 米國의 新建艦案에 拍車를 더하게된것이다。

○

다음 國際政情不安에 對하야는 歐洲政局에 對한 危懼도 엇지안은 그보다도 極東의最近의 情勢에 基因한 不安이 그 重要한 理由가되는것이다 마즈막 國內經濟對策으로는 年前 루大統領이 就任하자 곳 失業救濟策에 依한 三十二隻의 三個年建艦計畫을세워 海軍擴張과 不景氣退治라는 一石二鳥의 妙案을 考究하엿거니와 今回의 新建艦의 裏面에도 어와가튼 動機와 理由가 潛在하는것은 事實이다。(K)

事務引繼完了

佛政變遂一段落

【巴里十九日發同盟】쇼탕新內閣의 閣僚는 十九日午前에 모두 初登廳하야 新任者는 前任者로부터 事務引繼를마치고 茲에佛國의 政變은 一段落을告하게되엿는데 政界消息通方面에서는 新內閣은 急進社會黨、獨立、社會黨、獨立左派等閣僚를보면 諸派는勿論 社會黨의 不參加로派分을조케한 中央諸派의 支持를어더議會에서 多數를 占할수잇슬것이라고 觀測하엿다 社會黨도 新內閣支持를 約하얏슴으로 다만 問題는共產黨의 態度인데 共產黨은아마 議會의 信任投票에際하야 政府를支持하던지或은棄權할것이라고 보이는데 萬一反對投票를하더라도 中央派의 支持에依하야 充分이를 相殺할수잇슬것이라고 觀測된다

支那人投石으로 邦人學童重傷

新嘉坡當局에取締要求

【新嘉坡十九日同盟特派員發】十九日午前十時二十分頃 新嘉坡日本人小學校二階敎室에 또支那人이 주먹만한小石을投하야 二年女生徒 原美代子의 頭部에마저 重傷을입혓다 事變發生以來如斯한 不祥事件이頻發하야 我方은그때마다 警察當局에 嚴重取締하도록 要求하엿스나 警察은 [illegible]을 보여지안코 또巡査는 支那人을 恐怖하야 犯人을 逮捕하려고도안는狀態로 在留邦人은 거듭하는 不祥事件에 매우 憤慨하고잇다

그래서 岡本總領事는 十九日午後同不祥事件에 關하야 同地警視總監에 嚴重取締하도록 要求하엿다

若松總領事聲明

【哈爾濱十九日發同盟】滿洲里보르駐劄若松帝國總領事는 最近日英關係의 冷却化가傳하기때문에 滿洲에도 對日不穩氣分이 一部에 떠도는데鑑하야 誤解를一掃하고저 十九日次의談話를 發表하엿다

日英兩國은 現在世界에 덥혀잇는 暗雲을 一掃하기爲하야 共同할것이다 日本의 最後目標는 滿洲라고하나 여와가턴 中傷的論議는업다

共黨中央委員會

肅淸工作緩和

冤罪者續出함에鑑해

【莫斯科十九日發同盟】蘇聯政府의 所謂肅淸工作은 너무過酷하야 冤罪에 泣訴하는者續出하야 어것이 最高會議에서 問題로되엿슴으로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는 對策을 協議한結果黨員訊問取調를 行하지안코서는 逮捕를 禁止하기로 決定하엿다

今日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議會再開도 切迫하엿스므로 二十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 臨時閣議를열고 議會再開劈頭에할 近衛首相의 一般施政方針演說草稿와 廣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草稿를 審議 決定한後 時間이남으면企畫院에서 成案한 國力充實四個年計畫을 檢討하기로되엿다

米編隊機

無事布哇到着

【桑港十九日發同盟】米國海軍의 新鋭飛行艇 十八機는 十八日午前九時卅七分산디에고根據地를 出發하야 布哇眞珠灣海軍根據地로向하야 大編隊輸送飛行의 壯途에올넛는데 航程二千五百七十浬를 突破하야 太平洋標準時十九日 午前五時四十分 (日本時間午後十時四十分) 全機無事히 호노룰루港에 到着하얏다 所要時間은 二十時間三分이다

八面鋒

◇ 十七日부터 倫敦서는 英愛會商이 開催되드니、二十日부터는 印度 하리프라에서는 印度國民會議가 開催。

◇ 印度에 新自治憲法이 實施되지 겨우 一年、그동안 실증이 낫나? 英國의 對外情勢를 틈타 한바탕 일을 꾸밀 作定인가。

◇ 植民地를 만히 가진 英國、國際的 危機가 올사록 근심은 加增。

◇ 南支를 攻擊해도 英國은 不干涉主義를 取하것다는 말은 這間의 消息을 窺知。

◇ 獨逸은 日支兩國間에서 嚴正中立을 守하고 斡旋을 해 왓는데 日本의 重大聲明으로 新段階에 入하얏다고 聲明。

◇ 調停할 希望이 업단 말인가、斡旋을 안켓다는 婉曲인가。

◇ 米國海軍省서 맨든 列强海軍力 比較表에 依하면 即時戰鬪可能艦은 日本이 首位라고。

◇ 自國의 建艦을 主張하는者 每樣 他國의 建艦狀況을 誇吹。

人事·集會

▲金大羽氏(總督府社會敎育課長) 十九日夜 京城驛發 咸興에出張、二十一日午後 歸任豫定

▲野坂三枝氏(府立府民病院院長) 新任人事次 二十日來社

▲鄭然基氏(全羅北道參與官) 新任人事次 二十日來社

▲申泰翊氏(東京支局長) 十九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歸任

北愛蘭問題延期

英愛會談終了

【倫敦十九日發同盟】波瀾을나흔 英愛會議는 北愛蘭問題의 討議를 暫時延期하기로되여 겨우決裂을避하고 十九日會議로써 終了하엿는데 愛蘭自由國 代表데·발레라首相은 로이터通信社를 通하야 愛蘭國民에如左한 멧세이지를 發表하엿다

余는今次의 英愛會議에 依하야 兩國關係가 改善될것을期待한다 我等은 北愛蘭自由國을合併하야 愛蘭의 統一을實現함이 兩國間의 友好關係와 眞實한相互諒解를 圖하는데 不可缺한 基礎라는것을 終始强調하엿다 我等의 前途에橫在한困難은 크나 會議는 率直히 友好的空氣中에行하야 我等은 在外同胞에對하야 此等困難을 除去하기爲하야 我等을 援助하야주기를 要請한다

歸靑船多數

食、飮、燃料欠乏

【靑島十九日發同盟】急速히 平和가回復되고잇는靑島에歸還하는 內地各地에 避難中이든 居留民의第一船은 벌써昨十八日 諏訪丸이五百名을 실고神戶를出帆하고黑龍丸은 十九日에 日光丸은二十四日에 모두約同數의 居留民을실고 歸靑하기로되엿는데 靑島港은 目下 支那側의 海上封鎖와膠濟鐵道의 破壞로海陸兩方面으로부터 物資의流入이 遮斷되엿스므로 極度의 物資欠乏에苦痛을바다 普通一俵二十五弗하든 上海米가 四十五弗로 또石炭一噸 二十圓하든것이 三十六圓으로되고 그것도 粉炭에限하고 塊炭은 全無라는現狀이오 其他一般物價 勞働賃銀等은 모두極度의 昻騰을보이고잇다 더욱 嚴寒時에 居留民이長期不在하기때문에 各鋪住宅은水道가 杜絶되야 一千數百의居留民이 一時에 歸來하야도食糧飮料燃料에는 相當한不便을感하므로 警察에 그對策確立을 要望하고잇다

新蘇聯駐支大使

重慶으로向發

國府에信任狀捧呈次

【倫敦十九日發同盟】十九日의로이터漢口電報는 新任駐支蘇聯大使오렐스키氏의 動靜에對하야 如左히報道하엿다

오렐스키大使는 不得已漢口에滯在하지아니치못하엿더니 十九日大使館員五名 支那外交部員과함께 漢口를出發하야 飛行機로 重慶으로向하엿다 同大使는 重慶에서 林森首席에게 信任狀을 捧呈할豫定인데 新首都에서 外國使臣의 信任狀을 捧呈하는것은 이것이最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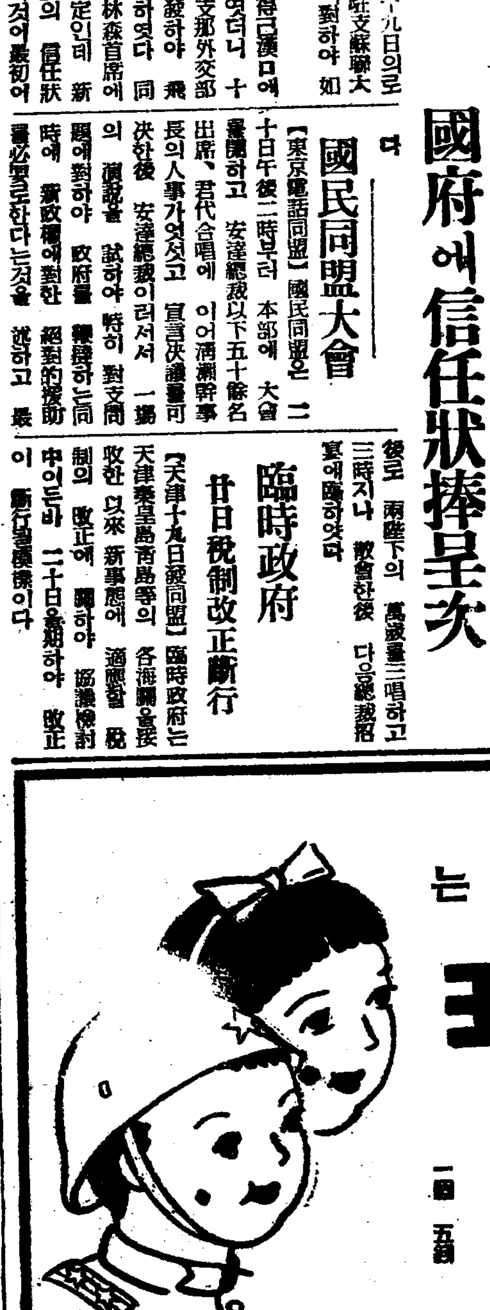
國民同盟大會

【東京電話同盟】國民同盟은 二十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 大會를開하고 安達總裁以下五十餘名 出席、君代合唱에 이어洒瀨幹事長의人事가잇섯고 宣言決議를可決한後 安達總裁이러서서 一場의 演說을 試하야 時局對支問題에對하야 政府를 鞭撻하는同時에 新政權에對한 絕對的援助를必要로한다는것을 說하고 最後로 兩陛下의 萬歲를三唱하고 三時지나 散會한後 당장總裁招宴에臨하엿다

臨時政府

廿日稅制改正斷行

【天津十九日發同盟】臨時政府는 天津秦皇島靑島等의 各海關을接收한 以來 新事態에 適應할 稅制의 改正에 關하야 協議檢討中이든바 二十日을期하야 改正斷行할模樣이다



救急靈藥 天寶水 (천보수)
非常時家庭常備
식상、토사、곽란、구기、수취、두통、기울、종서、중한、수토불복、선차현훈 홍복통에특효。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平壤府薛岩里(電話二〇六七番) 振替京城一四一四八番
定價 三圓·五圓 (天寶水)
▲五大名藥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ツピリン
一、滅癬水其他
各種製藥本舖

ALMOND PAPAYA CREAM
藥用クレーム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파파이酵素와 아르모드의相乘強化 大藥効
여드름업샘
죽은깨업샘
藥化粧兼用效能
粉末 パパヤ洗粉 洗顔에 쓰기되는 專賣特許 卅五錢
●見本進呈 便紙에三錢 切手를너어 申込하시요
東京神田松住町 株式會社 都田商店

延專世專의暗雲一掃

北長老敎宣敎本部 繼續經營을決議

在米元校長으로부터報告電報

私學의兩柱는健在

미국 북장로교 조선선교회에서 교육인퇴원측을 발표한이래로 조선사회계를 뒤흔드러노흔 창흔(創痕)은 실로 신각하야 이미 평양의 력사기픈 세 학교는 영원히 문을 다치게되여버리고 대구의 계성(啓聖) 신명(信明) 두학교는 간신히 경북로회(老會)의 활동으로도 아직 경영적 망명을 엇지못하고 학교의존속을위하야 가진 발버둥질을치고 잇는동어며 서울의 경신(儆新)선천(宣川)의신성(信聖) 역시 신학기를 눈아페두고 일루의 망명을엇고저 당국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실로뜻잇는사회인으로하야금 초조치안흘수업게하고잇는 이때에 조선사회계에 량대지주(支柱)라고도할만한 연전(延專) 세전(世專)은 장차 어떠케 될것인가? 이도역시감리교와 북장로교와 공동경영체인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한시라도 노치못하도록 하고잇는동에 이십일아침 현재미국에 도라가잇든 연전교장 원한경(元漢慶)씨로부터 『북장로교 외지전도본부는 연전과 세전의 공동관계를재인하다』는선교본부의 결의를 통쾌하게보고해왓다 경과인즉 지난일월십칠일 뉴욕서열린 북장로교 외지전도국 총회에서 연전(延專)과 세전(世專)문제를 토의한결과 다수파가튼 바가온결의가되엿슴으로 이회의에 참석하엿든 연전교장 원한경씨가 본교로전보한것으로 전문을의역(意譯)하면 北長老敎外國宣敎部는 延專과世專에 現在共同管理(監理敎와 長老敎外)를 再確認함 朝鮮內北長老敎宣敎會는他敎派와協同하야兩校經營을繼續하기를熱望함 多數意見은 兩校共同經營을支持함 (사진은연전우 세전좌)

電報原文

> Board reaffirms joint control colleges urges mission continue cooperation sentiment favoured colleges. Underwood

理事會의微溫的決議에

全幅的期待難望

敎會"몬로主義"를一擲안호면 信聖校前途에는亦是暗影

【宣川】 파란중첩 오직 고경의 삼십여년을 걸어오면서도 오직 이땅의 자제를 위하야 만흔공적을 남긴 사회게의 지보 선성학교(信聖學校)를 살리느냐죽이느냐?의 최후적 림상(臨床)을 직히든 동교 리사회의 결의내용은 작보한바와 갓거니와 파연 이결의 내용이 학교장래의 운명선에 얼마나한 명랑성을 약속할수잇슬가 그리고일반의 기대수준에 얼마나한 접근성을 가지고잇는가 자못주목처이다 작년십일월 이십구일미순회실행위원회에서 명년삼월말까지에경영에서 인퇴하기로 결의를 표명한이래 수만흔 동창생(同窓生)들과 각게인사는 오직 동리사회의 노력을 최대의 기대로 삼어왓다 그러나 금번결의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그들의 견두한 성의만은 짐작할수잇스나 시일을 천연시켜 시기를 노카려는『감푸라쥬』수단으로 밧게 더 해석되지안는 전도본부의 전보(작보)에 최대희망을 부처 구체적의론에 잇서서는 삼월말경까지 연기한다는 미온적결의를 지은것과 전도본부의 력사에잇서서 일죽어느시기 어느나라를 물론하고일단 사업에 투자한재산처분에잇서 대여(貸與)나 매도(賣渡)한 사실이업는 원칙을 무시하고라도 도와줄가하는 막연한 성의를바래여 아무런 도량과설계조차 확연한수립이업시 인계경영을표명하야 천에하나잇기 어려운 행운을 막연하게바라는 모호한그들의 태도와 성과열에 잇서서 감사는 감사하나 오히려 불만의정도가 노파가고잇다

그리고 조선인측 리사의 재벌의 배경으로 되여잇는 삼로회(平北、義山、龍川)의 형편을살펴볼진대 신성학교 보조금 작년도예산이 겨우 일천일백삼십이원으로 이를 평북로회의 각교원의 부담액을 따저보면 매세례교인(洗禮敎人)일인당 삼십여전에 된다고하니 물론 물질적 여유가 비교적 나흔 읍내교회들에 잇서서는 부담고의쓴맛은 몰지언정 공유적 견지로 보아 별로 문제시할것이 업스나 경제적 토대가 전연 박약한 산어촌(山漁村)의 교인들에게 잇서서는 실로 과중한 부담이라 아니할수업서 매년 로회시마다 보조금이 감소되는일면 또한 전연 지출불능을토정한 사실로보아 교회의권리를따난 사회인의용훼를절대 불허하는 단순 로회인계경영에 잇서서 그토대는오히려 모래우에세운 성과가튼위험성을 주고잇다 더구나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전제로 한 지정(指定)의 법적기한이 절박한 금일에 잇서서 시기를 천연시키는 미온적 태도는 학교를 구하는것보담도 도리여 여지업는 구렁에 미러넛는 결과를 맨즐것이니 명랑을 전제로한 구교공작(救校工作)에 일대 암영이 아닐수업다는대 아프로 그들의 최선적 책임수행과 동창생들의 금후 궐기공작이 크게주목된다

新入生不募集을

昨日正式申請

設立者二名을增員申請함께

儆新前途漸益混迷

북장로회조선선교회의 교육인퇴원측에걸려 생사선상에서 부침하고잇는 경신학교문제는 일전 쿤쓰(君芮)교장과 리사최태영(崔泰永)씨가 도학무과장을방문하고

一、금년도신입생불모집

二、설립자두명증원 (밀러씨와 최태영씨)

에대하야 간담한바잇섯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선우일 여두가지를 각각서류로작성하야 학무과에정식으로 제출하엿다

학무과의 이문제에대한 의향으로는 설립자증원은 전례도만흔것이며 학교당국자가 학교발전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이상 인가하야도조타는 의견이나 신입생불모집은 조선안에서는 전례업는일이며 학교장래를위하야 중대한 문제임으로 면밀한 검토업시는 인정할수업다는것임으로 설립자증원은 총독부를거처 인가될것으로보이나 신입생불모집문제는대단한 난색이보인다

信和鑄物工場主 各團體에寄附

부내 원정(元町)일정목일백십팔번지 신화주물공장(信和鑄物工場)주인 쿠로마쓰(黑松又七)씨는 그의아들 예비육군보병소위 우일(又一)(二〇)군이 지난사일에 군인으로서 아무봉사(奉仕)도하지못하고 병으로 요사하엿슴을 유한으로여기고 십구일에 작기 각단체에 이천삼사원을 기부하엿다한다

▲第六軍偕行社將校團에 千圓 ▲在鄕軍人龍山分會 五百圓 ▲元町一丁目靑年會 百圓 ▲佛敎慈濟病院 百圓 ▲大念寺 三百八十圓

血書로 志願兵志願

지원병채용원(志願兵採用願)은 조선청년에게 큰충동을 주어각 방면에 표현되고잇는대 이십일 남총독(南總督)에게 경성현저정 사신불안지의 이백구십사호(京城府通洞四六의二九四)윤중기(尹重晟)(二〇)는 혈서로 대일본제국만세 나는조선에서 나서일본신민으로그의애국심은 어느누구한테나지지안흘것이니 꼭지원병으로채용하여주시기를 원하는바이다 라고 보내여와 감격시키엇다

車掌의交通奇禍

이십일오전일곱시이십분쯤 동대문(東大門)을떠나 청량리(淸凉里)로가든 경전(京電)일백사십사호전차가 숭인정(崇仁町)백호작저(林俟鉉)아페 다다르자 전차선로에서 놀든아이들이 경적(警笛)을 울려도 물러나지안홈으로 차장리귀필(李圭弼)(二〇)은 차장대에서 상반신을 박그로내밀고 아이들에게 주의를주다가 불행히 전주에 머리를부디처인사불성이된것을 부근적십자병원동부출장소(赤十字病院東部出張所)에 떠메여다가 치료중이라는데 생명에는 이상이업슬것갓다고한다

基督敎經營各校에

今年부터補助金

大藏省査定額이今年度에四萬六千圓

當局에反響된"敎育引退"

남북장로교(南北長老敎)경영학교의 신사(神社)참배문제로 남조선일대에는 이미폐지된 학교가 다수에달하엿고 또 현재폐교운명에 빠저잇는학교가 또한 다수에 달하야 잇는이때 총독부에서는 신년도예산에 기독교경영학교의 보조금으로 사만육천팔백십사원을 계상하야이미 대장성국의 사정을 거처서 의회의 협찬을 엇기로되엿다 이와가티 기독교게통의 학교에 국고보조를 하는것은 이번이처음인데 최근기독교게통의외국인들이 조선교육인퇴에 급급하고잇는이때에 전례에업는 거액의 국고보조를 단행하는 그리면에는 여러가지 사정이잠재하야잇는동시에 이비상시국 비상예산에잇서서는 더욱 주목되는사실이다

二區制廢止안하면

來月부터消燈

京電側의態度에不滿으로

敦岩町民强硬決議

돈암정(敦岩町)주민들이 경전(京電)의 돈암정선 이구제(二區制)에대하야 반대의봉화를 들고 주민의 총의(總意)로 이구제의 철폐와『二錢』운전시간의 연장에상 두조항을들어 석구일주민대표 리경로(李敬魯)씨등 국우상점(國友商店)씨등 십여명이 경전당국을방문하고 전기 두조목의 당면실정을 진정하엿든바 경전측의 답변이 다소가대에이그러지므로 여실열오전 다시주민대회를열고 여어서 의원회의결의로 경전에삼월일일까지 주민의 의사를 봐더주지안코 최초의 결의대로 소등(消燈)을 단행하기로 경전체의『보이코트』를 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東京協和會의活動

동경에가잇는 조선사람단체인 협화회(協和會)에서는 부하열군데다가 교풍회(矯風會)를 만들고 생활개선 시국인식에 대하야 활동중이든바 이번『재경반도출신자의참마음』이라는 리—플렛트를 만들어 각방면에난호아잇다

大衆的國語普及

卅萬人目標로大大的運動開始

남출독어 황국신민양성의 한구체책으로써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잇는 국어의 장려운동은 드디어 신년도부터 전조선의 농산어촌을 무대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게되여 학무국에서는 이에대한 명년도경비 칠만원을 계상하기에 이르럿다 이는 명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일개년 십만원, 총계 삼십만명의 지방민에게 국어를 익게할 방침아래서 사회교육과에서 국어장려용독본을 편찬하야 무상으로 배포하고 농산어촌의 초등학교원이 이를대본(臺本)으로하야 각지 학교를중심으로 약삼개월간에걸처서 강습을실시하고 초등학교 확충계획의 수행과함께 적어도 조선청소년층이 모두 국어를해석할수잇는정도까지 보급시키라는것으로 대중적교육의확충운동이니만치 자못기대를 가지게한다

大東商業實修 認可申請

부내계동정(桂洞町)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學校)설립자 고창한(高昌漢)씨는 얼마전 대동상업실수학교(大東商業實修學校)설립인가원을 경기도학무과에 제출하엿는데 그내용은 상업, 어학의로 금년도모집인원 오십명으로 설립되기는 대동상업 방계학교인계산보성학교(桂山普成)졸업생으로 상업교에 가지못하는 아동을 수용하야 일반상업학교정도의 교육을하자는것으로 당국에서는 인가여부를 신중고려중이라 한다

朝鮮式漢文讀本

新學年부터遂廢止

中等敎科書를一齊히改正

총독부편찬 교과서중 소화십삼년도 신학기부터 사용할것과 십이년도에 한하야 메보할것에대하야는 지난달 일부 염원학무국장(塩原學務局長)으로부터 각도지사에 통첩을 발하얏는데 신학기 사용교과서중 특히 종래와 달른것은 중등교과서『조선어급한문독본』일권으로부터 오권까지합본이 전부 삭제되고『조선어독본』으로된것이다 이것은 작년칠월 총독부령 일백사십일호로써 고등보통학교 규정개정에의하야 교과목에서 한문이 삭제된것으로 신학기부터는 마친내조선어독본에서 한문교과목이 제외되고 마는것이다

沐浴값이오른다

今日부터七錢式

이십일부터 목욕값이 일전식올라서 칠전이 된다—경성목욕탕조합(湯屋組合)에서는 그동안 연료(燃料)기타 모든물자가 비싸짐으로 당국을향하야 일전식 올려달나는진정을 수차하바엿섯스나 보안과에서는 단일전이라하드라도 그것이즉접대중생활에미치는 영향을생각하야 신중히연구고려를하고잇든중천정모르게 비싸지는 석탄갑등의 실정에비추어 이십일드되여 종래어른육전을 칠전으로소년사전을 오전으로 올리는것을 허가하얏슴으로 업자들은 즉일실시하엿스며 어린애당갑이전을 삼전에올리는 업자의요구는 각하되엿다

大寒은明日이건만!

첫봄가튼요지음日氣

이십일일은 이십사절(節)의하나인 대한(大寒)날이다 글자대로한다면 소한(小寒)은 덜춥고 대한이 더추은절기이지만 조선에서는 녯날부터로도 소한이 더춥고 대한날은덜춥다고한다 이번대한도 그래서 버서나지안호려는듯 어며춥든지 날세가 푸근하야 나제마다는 수은주가 빙점(氷點)을 오르나네어가고잇다 대한날들어서십일의 날세도 여전히따스하니 아마이번대한날도 춥지안흘모양이다 어제보통만지나면 립춘(立春)이 다처오니 추위도 한고비를 너머서서봄의 (음령)도차차가까워오고 잇다

龍山師團에서

各校敎練査閱

十六日부터日割決定

용산사단에서는 다음과 가튼일정으로 관하 각학교에대하야 소화십이년도재산관의 교련사열(敎鍊査閱)을 지행하기로되엿다

▲一月十六日 晉州高普(步八〇 佐野大佐) 十七日 晉州農業(步八〇 佐野大佐) 十九日 平壤商業(龍山師團 吉田大佐) 廿日平壤中學(龍山師團吉田大佐) 二十日 平壤中學(龍山師團吉田大佐) 廿一日 開城商業(步七八 梅野大佐) 廿四日 木浦商業(步八〇 佐野大佐) 廿五日 光州中學(步八〇 佐野大佐) 廿六日 光州高普(步八〇 佐野大佐) 廿七日 光州農業(步八〇 佐野大佐) 卅一日 全州高普(步七九 山田中佐)

▲二月一日 全州師範(步七九 山田中佐) 二日 群山中學(步七九 山田中佐) 三日 裡里農林(步七九 山田中佐) 四日 京城農業(步七八 梅野大佐) 江景商業(步七九 山田中佐) 八日 京城醫專(龍山師團高橋大佐) 平壤高普(龍山師團吉田大佐) 釜山第一商業(馬山 堀川中佐) 九日 平壤商業(龍山師團吉田大佐) 釜山第二商業(馬山 堀川中佐) 十日 平壤師範(龍山師團吉田大佐) 十二日 京城第二高普(龍山師團吉田大佐) 善隣商業(步七八 梅野大佐) 十四日 京城商業(龍山師團吉田大佐) 十七日 京城法專(龍山師團高橋大佐) 京城第一高普(步七八 梅野大佐) 十八日 京城工業(龍山師團吉田大佐) 淸州高普(工二〇 淺村中佐) 二十五日 京城醫專(龍山師團高橋大佐) 二十六日 鐵原農商工(步七八 齋藤中佐)

▲三月二日 京城師範(龍山師團吉田大佐)

江原道에暴風禍

沿岸各郡의被害莫大

【春川電話】 십구일밤열두시강원도(江原道)경찰부장으로부터 경무국에 도착된 전화보고에의하면 십팔일오후세시반부터 십구일오전두시경까지 강원도동해안 북진(北鎭) 삼척(三陟) 강릉 양양(襄陽) 통천(通川)등각군일대를 엄습하야 가옥의구실호의 피해를비롯하야 전선, 전주절단으로 강릉 양양일대의 송전이불통되어 암흑세계화하고마럿다 그피해상황은 목하경찰에서 조사중이나 십구일아홉시까지 판명된 피해상황은다음과갓다

一、江陵郡 ▲家屋全壞一八 ▲家屋半壞一 半壞九 ▲...

二、▲家屋全壞一四 半壞六 ▲... 任文津及江陵邑 注文津 三陟郡北三面 通信不能

三、襄陽郡 ▲家屋全壞七 半壞六

移民二百戶

全南에서追加

全南配定戶數總六百十戶

금춘전남(全南)으로부터 만주(滿洲)에 이주할호수는 전번에 발표한바와가티제일회분으로서 사백십호가 배정되엿는바 이번에 이백호를 추가하야 이주시키기로 되엿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정에의하야 전부선박에관한 보고는 선원하이미 경무국으로부터 전남지사에 통첩을발하엿슴에 이로써 전남에 배정된계출수는 이제실현이고남조선전체의 추가할수는 삼천삼십호이다

스포—츠

學生氷上開幕

五百米石君一着

朝鮮學生氷上聯盟主催의 第一回氷上大會 스피—드競技는 二十日午後一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行한바 參加校는 城大、醫專、大邱、世專、高工、延專、普專、醫專等인데 이날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五百米】 (세파레—트·코—스) (十八名이 出場하야 九組에나노아 行함)

1石龍元(醫專)五〇秒五 2金星煥(延專)五一秒六 3高甲權(世專)五二秒八 4黃正河(醫專)五三秒二 5李好善(普專)五三秒六 6李成根(延專)五四秒

▲得點 醫專六 普專五 延專六 世專四

全朝鮮아이스·하키

朝鮮아이스·하키—聯盟主催의 第一回全朝鮮選手權大會는 다음의日程으로 淸凉里링크에서 擧行될터이라한다

A 普專—龍中(二十二日午後二時)
B 京師—醫科(同 二時半)
C 世專—醫專(同 四時)
D 鐵道—大學(同 四時)
E 醇和—高工(二十三日 正午)
F 全延禧—全京城(同 正午)
A勝者—B勝者(同 午後三時)
C勝者—D勝者(同 三時)
準決勝(二十四日午後四時半)
決勝戰(二十五日午後四時半)

女子氷上大會

廿三日淸凉里서

朝新主催의 第十五回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 來廿三日午前九時半부터 淸凉里町綜合링크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參加校는 京城女高普 京城保育 龍谷高女 第一高女 第二高女等 十餘名、學童部에는 三名이라고한다 그리고 競技種目은 一般女子部는 五百米、千五百米、三千米、二千米릴레—學童部는 五百米、千五百米、二千米릴레—等이라고한다

研武館冒寒練習盛況

朝鮮研武館의 創立六週年記念式은 지난十七日午後六時半부터同會館內에서 盛大히 擧行하엿스며 今年度冒寒練習은 十九日부터 每朝五時正刻…六時半까지行하고잇는데 參加人員은 無慮百餘名에 達하야잇서 盛況을이루고잇다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四國附近에 잇서 東進하고잇다 또日本海南部와滿洲中部에도弱한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蒙古方面에優勢로서 朝鮮에 퍼지고잇다 北鮮은雪 南鮮은흐리고 關釜海峽은雨 西海沿岸及南滿洲는개엿다 日本內地는雨 東北地方以上은흐리고 樺太에는 降雪이잇다 一般으로좀치웁다

豫報 오늘밤은개여고 西風이분다 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一度九
同 最低 零下二度
今朝最低 零下五度
今日正午 〇度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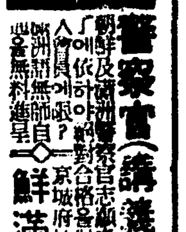
남보다 더악하지안타고

[illegible]

警察官(講義合部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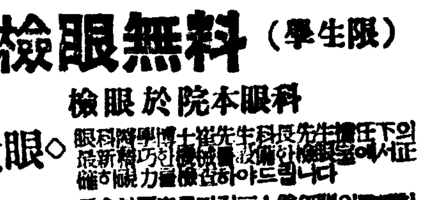
[illegible]

鮮滿警察學會



朝鮮總督府看守(朝鮮人)募集
(1) 一月三十日午前八時 全鮮各刑務所
(2) 二月一日午前九時 (京城西大門、仁川ヲ除ク)
京城西小門町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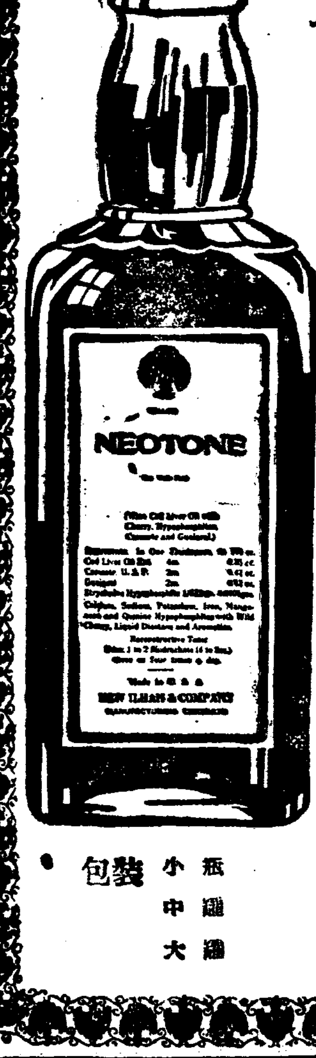
因 原料暴騰 洋襪價格
一割以上引上함
平壤靴下同業組合



検眼無料 (學生限)
検眼於院本眼科
◇検眼◇ 眼科醫學博士崔先生科長先生擔任下의 最新精巧한機械로 ...
◇眼鏡◇ 長久한歷史를가진三十餘年間의 ...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ダイヤモンド 貴金屬 時計
破格大割引賣出し
半額 三割引 二割引 (二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
時勢에 順應하와 轉向하기爲해서 手持全商品을 大一掃코저하옵니다
本町一丁目
高木貴金屬店

生徒募集
▲本科 六個月 ▲速成科 三個月 ▲研究科 四個月 ▲通信教授科 六個月
▲出願期 二月二日 ▲考査日 二月三日 ▲發表日 二月四日
▲開學日 二月五日
奉天測量學院
◆校舍奉天市十間房(奉天郵政管理局前)
▲詳細ハ學則請求スルコト (要三錢切手)
電話本局(二)一四六六番 振替奉天三三七四番



네오톤(NEOTONE)의效果는
果然어떠합니까?

네오톤은 一般虛弱·病後衰退·呼吸器系統疾患及産後等의口味가업고身體가衰退한境遇에服用하면 其効力이優秀하여 實地로 여러愛用家諸賢의陳述한바에依하면 服用後數日에消化機能이旺盛해지며 食慾이增進하고漸次神經系統을刺戟하며 新陳代謝를旺盛케하여 諸般病的症候가消退되고 體重이增加되여自覺的으로 氣力의恢復을 늣길뿐만안이라漸次精力이旺盛해짐을認定합니다。

弊社가全東洋에 世界的强壯劑네오톤을 供給하기始作한後 十餘年間或은醫療機關을通하야 或은民衆에게直接으로 今日까지의需用된 네오톤을 量으로計算하면實로數千石에不下합니다。

네오톤을 服用한後 效果는各人에따라서 多少그奏效程度의差가잇슬지나大體로말하면 現代醫學原理에合致된高貴한强壯劑로서 異口同音으로 如上의實效談을하게된것은决코偶然한事實이안이라고 生覺하야네오톤을아즉服用치못해보신諸位에게 參考로述한바입니다

(本劑를 服用하실때에는 먼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 肋膜炎 産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 心臟疾患· 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瓶 大瓶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 上海· 大連

躍進東海岸水產界 過去現在및將來

生產技術은機械化하엿스나 漁權[非緣故者]賦與는禁物

東海岸은 北으로 世界三大漁場의 하나인 露領「캄찻카」大漁場을 控挾하고잇스며 寒暖潮流의 關係가 魚類棲息에 最適當하야 年一億圓에 達하는生產高를 나타내고잇는것이다 이水產業이 어떠한 過程을 밟버今日과가튼 偉大한 生產을하고잇는것을 槪括的으로 述하여보겟다

東海岸에서 產出되는 魚族의數를 말한다면 열두 헤일수업다 다만 全水產額에 八割을 占領하고잇는 朝鮮의 二大水產業인明太業과 鰮漁業의 歷史的過程을 記述하려한다

一、過去

元來明太魚 이란 四大特徵이잇서 魚族中에서도食料로서最適當한것이다

一、廉價性이 잇서 얼마든지 保管할수잇는것

二、漁獲이어서 乾燥하기便宜한것

三、體材의均衡이 積置하기適宜한것

四、保存性이 永久하여서 商品食料로써 唯一한것

以上과가튼 有利한條件을 가지고잇기때문에 水產業을 古代로부터 幼稚하나마 甚히獎勵하엿든것이다

昔日에 鰮南帆船이라하야 咸南沿岸一帶에 出帆하야 釜山이나 馬山으로 約一個月式來往하면서 商買들이 장사하고잇은것 이與이것을 말함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甚히漁撈의 方式이 幼稚하야 到底히 一般의食料로서 供給할수업섯든것이고 따라서 交通의 不便은 明太魚의 聲價를 一般的으로모르고잇섯든것이다

그때의 漁具로말하면

釣撈簾擧網(鳥賊擧網、忍投網、漁業等)으로써近으로부터 그러케멀지안은곳에서 大槪漁撈를 圖謀하엿든것이다 그런故로 그幼稚함에따라서生產이 極히低劣하야 附近地方에 牛車나 人力으로 運搬하야多少間村民들의 食料에나 供給하여오다가 文化가 發達함을따라서오는 生產機構조차 改革되여갈쌔로漁民들은 漁獲方式과漁具의不完全함을느기고 좀改良的色彩와 進步的이라는것이 今日까지 持續하여오는所謂 刺網漁業이니 定置網漁業이니 底角網漁業이니手繰網漁業이니 하는것等이다 그러나

各生產機構가 機械化함을따라 漁村도機械化하여감은 必然的事實이다 그래서 近日에는明太漁業에는 機船底曳網、即發動船 뎃구리라든지 蟹物과 鰮漁業에는海上을威脅하는巾着網漁業이란것이 發生하야 從來의漁撈形態는 全滅狀에 이르고잇는것이다

二、現在及將來

그러면 이機械化한 漁業利權이 過去나現在에잇서 緣故者인 地元漁民에게 賦與되고잇는가 그러치안으면 何等緣故업는 中間取引業者나 엇던利權家의 掌中에 占有되고잇는가 이것이 問題의核心이다

첫재로 發動機船許可는 웨 數百年祖上으로부터 繼承하여오는 緣故者인 漁民에게 주지안는가 또한 近來부터 刺網漁業이나 忽致網漁業으로 破滅을 當하고 生死岐路에서 헤매고잇는 그들에게주지안는가 둘재로

巾着許可는 웨 鰮刺網漁業民과 在來地元式으로 破綻을 當하고잇는 地元漁民에게 주지안코 멀리 慶尙道나 何等緣故업는 他道人에게 주어 그들의 배만불리고 잇는가 이問題가 識者의 關心을 더한층 새롭게하고 잇는것이다 近二百隻에 達하는 巾着許可權과 第二區에만하여도 四十五隻에 達하는 機船底曳網許可權은 全혀 緣故關係를 보아서는 甚히遺憾인分子들에게 賦與되고잇스니 漁民들의 生活安全은 무엇으로서 圖謀할수잇겟는가 이問題는東海岸漁民들은 隨時對策을 講究하며 或은陳謝 或은陳情으로서漁村에는 참으로 寧日이업는것이다。

東海岸에 水產業이 急速度로 發達하야 面目一新으로 躍進한 顯著하고 잇는듯하지마는 그事實에잇서서는 過去에 기픈緣故를가진 純全한 바다의아들인 漁民들은 그影子조차 감초게되고 도모지 보지못하는 生疎한 人間들이 主人席을 빼앗고잇다한다 이러한 現象에서 救出할가 하고 民을 苦境에서 救出할가 하고 今般 咸南 群仙에 本部를두고 東海鰮刺網相保組合이 設立되여 全東海岸 곳곳마다 支部를 두고 活躍하려한다고한다 이제 設立趣意書와 定款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漁村民更生機關

東海鰮刺網組合 創立趣志書

微力糾合코漁業向上企圖

鰮油業景氣가 東海岸에 黃金雨를내리는 今日에 唯獨資金의缺乏으로 進步한科學的生產機構의 獲得도不能하고 時代遲의 刺網業으로 生產의合理化도 圖得키도難하야 業態는 支離決裂하고 業績은破滅을 招하는것이 我鰮刺網業者로서의 弱少工場主의現狀이다

이自滅의悲運에 苦悶하는 我鰮刺網業者의 微弱한心力을 糾合하고 分散無秩序한 業態를協同整備하야 一大新興努力을 構成하야 連鎖的으로 業態를合理化시키는一方 零細한資金을 蓄積하야 新時代에相適한業態로邁進하려함이 本組合의 抱負요使命입니다

我等은 무엇을할것인가 생각하기前에 爲先무엇이 我等을破滅케한原因인지 檢討하면

一、慶南에서 咸北까지가 我等出漁區域이다 그럼으로 自己工場地方에서 漁獲하야 自己工場에 製品케하는 鰮魚보다 他地에가서 不得已廉價로 他工場에賣却하는 鰮魚數量이 몃倍되여 收支相償치안는 刺網業의損害는 我等이 獨擔하고 完全한製造業은 他人에게 讓하는現狀이니 이것은 今後도할것이다

二、我等이 漁業에 投下한資金은 全體的으로 算하면 巨額이나 이것이 集中되지 못함으로數萬圓乃至十萬圓의 大資本을 要하는 有利한事業에는 我等은 除外되는現狀이다

以上의 現狀에鑑하야 吾人은我等의更生對策을 定함

一、慶南以北地方의 刺網船을糾合하야 本組合의 組織下에置하고 當分間은 各重要漁港에 連鎖工場을 置하고 漁獲物은一切該工場과 取引하야 工場으로서 完全한 利益을得케하며 鰮時價도 維持하는同時에 工場의利益의 一部配當의 意味로 鰮每丁에 若干의 割戾金을納入케하야 此를 各加盟組合員의 生產資金積金을 代行하야 吾人의 一大恨事인資本集中과 新機構造成을 圖코저함

以上의事業을 成就함에는 吾人의힘은 加盟組合員數에 正比例되는것이오니 自他의 更生에關心을두시는 同業諸位는 爭先加盟하심을……

昭和十二年十月二十二日

東海鰮刺網相保 組合定款

第一條 本組合은 東海鰮刺網相保組合이라名稱함

第二條 本組合은 逐年衰退하는 鰮刺網漁業의 永久的更生對策을 講究遂行함으로써 目的함

第三條 本組合은 前條의 目的을 達成키爲하야 左記事業을 經營함

一、鰮刺網漁業의 改良發達을 硏究指導함

二、鰮魚時價의 維持策으로 重要地域에 連鎖工場을指定함

三、消耗品時價의 無理引上防止對策으로 販賣加盟店을 指定함

四、遭難漁船의 救助及行方探聽의代行

五、漁況通報及 漁船出漁에對한各般周旋

六、進步的 生產機構獲得을爲하야 生產資金 自然積金方法의設定勵行

第四條 本組合은 統制上 經營者를主體로하고 東海岸 鰮漁業者로 本組合의目的에 共鳴하야 事業에參加하는이를 組合員으로함

第五條 本組合員으로 加盟코저하는이는 住所 氏名 年齡 所有漁船 事業槪要等을 記入한 加盟願書를 本組合에 提出함을要함

第六條 本組合員의漁船이 自己工場所在以外의港에 出漁할 時에는 [illegible] 本組合 連鎖工場에 限하야 行하기로함

第七條 本組合이 [illegible] 現地時價를 參酌하야 協定함

第八條 本組合은 連鎖工場으로부터 利益配當의 意味로 一定한 割戾金을 收入하야 一部를 組合費에 充當하고 一部를 各組合員의 販賣한 鰮魚丁數에 比例하야 各其口座로 生產資金積金을 預入함

第九條 本組合의 連鎖工場은 本組合員에 限하야 指定하되 組合員이 不在한 地域에는 例外함

第十條 生產資金積金이 增加되는대로 自營工場 販賣店等 事業을 擴張하되 最後에는 株式會社를 創立하야 新規事業에 進出하기로함

第十一條 生產資金積金은 如何한 境遇라도 拂戾치 아니함

加盟願書

(住所)

(氏名)

(生年月日)

本人이 貴組合의 定款을 承認하고 貴組合員으로 加盟코저 申込함

年 月 日 右願人

東海鰮刺網相保組合 代表者 金昌烈 殿

이와가튼 東海岸漁業은 그將來의 變移는如何할가 問題는 이곳에 嚴重할것이다

資本이資本

을生產하는 것이 今日社會의 原則的事實인以上 漁村의 將來도 마찬가지의形狀을 資本의 勢力에 押頭되여 純眞한 漁民은 決定的으로 破滅을未免할것이다

이對策으로서는 沿岸各漁民은 特別한 自覺으로서 意識的判斷을가진다음 殘存한 얼마의 힘이라도 力量을 集重하야 近代利器의 德澤을 當局者에게 嘆願하는수밧게 別途理가업슬것갓다 그리고 各漁村에 所謂漁民을爲하야 存在하는 오잣團體와 오잣機關가 果然漁民그自身을爲하야 存在한가함을 確實히把持하야 그再建工作에 着手함에 길게 將來를 建設할要素가될가한다

▲咸南漁聯＝前列左로부터 둘재가 漁聯理事長 小野寺氏

咸南水產團體

咸鏡南道鰮油肥製造業水產組合

上記本部는 咸興府內에두고 그의組合長이되여 道廳職員으로서 左記와如히 各地에 支部를두고잇다

元山支部 西湖支部 三湖支部 前津支部 新浦支部 新昌支部 遮湖支部 群仙支部 端川支部

咸鏡南道漁業組合聯合會 本部를 咸興府新興町에두고 左記와如히 各地에 細胞機關을設置하고잇다

元山漁業組合 元山杜鑑漁業組合 西湖漁業組合 退潮漁業組合 三湖漁業組合 前津漁業組合 六臺漁業組合 新浦漁業組合 新昌漁業組合 遮湖漁業組合 群仙漁業組合 端川漁業組合

咸鏡南道水產會

이水產會는 大正十二年四月에 鮮水產會令發布와 同時에設立된것이다 咸南道廳에 本部를두고 各地漁業組合에 分會를두고 左記와如한 事業을하고잇다

年度	豫算高	施設事業
昭和八年	一三、五九七圓	出品物獎勵、漁船技術員養成講習會、水產物販路調査及仲介斡旋、漁船遭難救濟、副業指導獎勵
同九年	一三、九五〇	水產物品評會開催、水產講習會、稚魚放流獎勵、漁村振興座談會、漁船建造斡旋、遭難救濟、漁村基本調査
同十年	一一、八五一	船員養成講習會、水產加工講習會、北海道明太魚視察、肝油檢査、出品獎勵、遭難救濟、醫藥補助、仲介斡旋

以外에도 巾着組合이니 機船底曳網組合等 水產團體가잇스나 이는모두上記한 三機關에서管轄하고잇기때문에 略하것다

鰮油肥原料인 生鰮魚의生產形態

鰮油肥의 原料인 生鰮魚의生產形態는 左記와如하다

鰮魚를 잡어내는機具

▲漁撈의形狀

鰮帆刺網船 鰮巾着機船 鰮機械刺網船 鰮定置網

鰮油肥業의總轄機關

水產組合의機構

鰯油肥水產組合의 事業과그役割

鰮漁撈는 明太魚와正反期로夜間作業을하지안는故로 그漁撈方式에잇서 一層敏速化를 圖하지안코는 到底히生產能率을 發揮할수업다(寫眞은 咸南鰮油肥水產組合長 佐佐木高治氏)

近時 朝鮮東海岸에잇서서 鰯을原料로한 魚油 魚肥의製造가極히 旺盛하고잇다 그런데 朝鮮產業의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고잇는 所業이 그製造方法의幼稚함과 販賣機構의 不完全함에 基因하야 當業者들은 莫大한不利와不便을 招來하고잇는 남어지 昭和四年以降의 不況에依하야 製品의 價格暴落으로 業者는 非常히 苦境에陷하고 잇섯슴으로 이善後策으로서 鰯油肥의 統制가 施行되에따라 業者協議一五年十月十一日 本組合이 設立되여 今日에至하엿다 上 當局의認可를 得하야 昭和一

全沿岸에잇는 鰯油肥製造業者의 生產品인 鰯油와鰯粕을 業者를 代身하야 統制販賣의 契約即買主側인日本合同油脂 朝鮮油脂等과의 賣買協定을 하고잇스며 一方殖銀에서 生產資金을 極低利로 借入하야 各支部를 通하여서 業者의原料購入資金 鰯油肥前渡金貸付等을圖謀하고잇다

그 槪略을 記述하면 左記와如하다

一、事業資金一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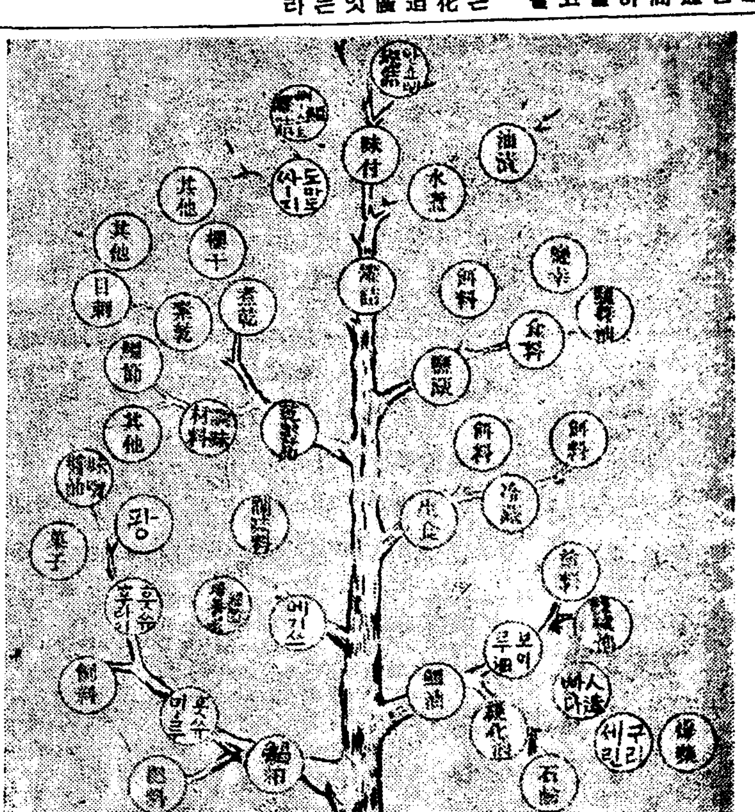
區分	昭和六年度 借入金額	利率	借入先	昭和七年度 借入金額	利率	借入先	昭和八年度 借入金額	利率	借入先	昭和九年度 借入金額	利率	借入先	昭和十年度 借入金額	利率	借入先
原料購入資金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前渡資金	—	—	—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共同購入資金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產銀行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同
事業資金	—	—	—	—	—	—	[illegible]	[illegible]	同	—	—	—	—	—	—
油탱크建設資金	—	—	—	—	—	—	—	—	—	—	—	—	—	—	—

眞鰮魚의用途

모든사람이 鰮油肥의 用途는 그일홈과 맛찬가지로 기름과肥料에만 쓰지는줄 大槪알고잇는듯하다 鰮種子가本紙를通하야 여러同業者와 諸賢의參考에供하야 一般當業者는 多少間 感이不無하다 左記圖를보면從來에 이鰮油肥로서 된다고 生覺하던用途에신 버서난感을 늣길것이다

맛치 咸北會寧에서 原料에잇는 老婆가自己의 손으로 親히따든綿花가 日本內地各紡績工場과 紡績工場을 걸쳐서 結局唐木이나 廣木으로化하야 自己가現在입고잇는 바지나 잠뱅이가되고 잇는 것은 全혀모르고 다만 면나라 나 몰래몰래하야 얻어잇는곳에서 오것으로만生覺하는것과 꼭맛찬가지로 우리家庭에서 늘쓰고잇는 크림이나 비누나 뻬마드나 구리세린이나 아지노모도나 이모든것이 이 鰮魚로서 된것은 아마 殆半이나 모르고잇슬것이다

이제左記그림을 자서히 보면 우리의常識이새로워질것이다



咸南漁業의總本營

漁業組合聯合會

十二組合統制、漁村振興企圖

咸南沿岸重要漁港에 位置를 둔十二漁業組合을 統轄하며 漁業에 對한 一般的機關으로 漁村의 振興方針에全力을傾注하고잇스며 咸南漁業機關의 總本營인(但鰯油肥漁業水產組合除外)咸鏡南道 漁業組合聯合會의 그正體와 業務는如何한가

咸南漁聯과業務의現況

流에 시켜 延長 百三十九里의 海岸線을차지한 咸鏡南道는 鰮魚、明太魚、其他魚族의天惠的漁場으로서 年水揚高二千五百萬圓에達하고잇다 此沿岸의 六千七百餘戶의 大衆漁民을 組合員으로서 組織한 元山、元山杜鑑、西湖、退潮、三湖、前津、六臺、新浦、新昌、遮湖、群仙及端川等의 十二漁業組合은 逐年組合員의 自覺과當局官憲의 庇護下에 漁民水產團體로서의 使命達成에貢獻이만헛스나 더욱 그 機能을 發揮할만한 咸鏡南道漁業組合聯合會를 客年一月 朝鮮總督의 認可를經하야 組織하고 位置를道廳所在地인 咸興府에두어 將來의活動의 根幹을삼고잇다

漁聯亦是漁組와 同樣의官憲의 嚴正한監督과 絕對의擁護下에잇서 公益法人으로서 其資金은總督府의斡旋下에 朝鮮殖產銀行에서 無擔保低利資金의 融通을受하고잇서 其役員은 總督府任命의 理事長及 理事並所屬漁組役員中에서選擧된 監事가 其職에當하야 大體左와如한 業務를經營하고잇다

一、所屬組合에의 事業資金貸付

二、同組合으로서의預金

三、同組合其他機關의 漁獲物及其의製品委托販賣

四、同組合其他機關의 漁業用品의共同購入配給

五、所屬組合의 業務指導其他組合業務發達上必要한事業施設

漁聯의成績은 아직日淺함에도 不拘하고 大體如左한業務狀況으로서 比較的順調의發達을 遂하고잇다

二、原料購入資金貸付表

昭和十年度

區分 支部別	直營 件數	人員	一人當貸付額	貸付金額	契約 件數	人員	一人當貸付額	貸付金額	貸付總額
元山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湖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津支部	—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浦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種類	貸付 又는 運用金	昭和十一年度	回收又는 戾入金	差引殘 十二年度越	備考
事業資金貸付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漁網漁具漁業鹽其他
預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共同購入品代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委托販賣取扱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肝油、明太子、干明太
總益金	一一六、六三九圓	總損金	一一五、一八一	剩餘金	一、四五八圓

咸南의明太魚는 鮮內生產의九割六分을占하고잇다 生魚約四百五十萬圓 干明太五百萬圓 明太子百萬圓 肝油四十萬圓 (以上十年度統計)에達하야 本道特產品이오 鰮魚水揚高四百五十萬圓 鰮油五百萬圓 同鰮粕四百萬圓을 關係水產組合에서 統制하고잇는關係上漁聯은 委托販賣業으로서明太魚를對象하고잇다

漁聯의委托販賣는 所屬漁組의資金을 融通으로서한 製品을取集하야 此를指名入札又는 他에再委托販賣함 方法을 取하고잇다 旣히肝油는 道令에依하야 漁聯의 손을것치지안코는 工場으로서는 取締止를 當하고잇서 完全히販賣統制의 實을擧하야 製造許可制度及道令에依한 檢査制度의運用과相俟하야 十一年度 十二萬貫價格七十八萬圓의 取扱高하야 對前年 一萬貫二割强 有利하게 販賣하고잇다 明太子는 大槪二十萬桶의生產으로서 八割을占함에 消費되고잇스나 檢査制는잇스나 統制에依함것이다

干明太는아직 個人商人의勢力이 鞏固하며 또한價格의 高下가 甚히不一한現狀에잇서 本年度明太部의 試賣同樣의 試賣를 漁聯에서 行한다음 對策을樹立할方針이다 그러나 數年以內에는 販賣統制가되여 漁聯의勢力이 增大할것이다

엇재던 咸南漁聯의將來는水產關係業者의 重大한關心을 惹起하고잇다

理事 小野寺喜我 監査 有馬 論 角田正義 李鍾健

東海岸水產紹介版 發行에際하야

朴炯壽

元來 朝鮮은 半島로서 三面은 海에 圍繞되여 海岸線의 延長은本土와 島嶼와를 通하야 四千三百九十五里에 亘하고잇스며 百壽線內의海床이 또한 頗히廣大하여잇다

그리고 北境 豆滿江口로부터 釜山港에 至하기까지 東海岸은海岸線이比較的長大하며 海底가深하고 西海岸처럼 干潮의 差가업서 潮流緩慢하고잇다

그리하야 寒暖潮流關係가 天惠的으로 魚族棲息에 最適當하야 魚介의利로서 東海岸의住民은 生活의安全을 保障하고잇다 그리고 朝鮮의三大漁業인 鰮漁業 明太漁業 鰊漁業等은 모다東海岸에서 營爲하고잇는것이다

그뿐아니라 最近朝鮮人의生產品으로서 歐美先進國家의 中央市場을風靡하는鰮油는 純全히東海岸에서만 產出되고잇는것이다 또한明太魚로말하면 全朝鮮坊坊谷谷에 때를勿論하고 食料로서供給되고잇스며 鰊魚로말하면漁撈하는即時로 漁場에서 撈撈할必要도업시 日本內地商船들과 賣買하야 生產朝鮮의 生命線問題이다 이것은 單純히 漁業問題에만 그치는問題는 아니다 이것은水產朝鮮의 經濟問題이요 朝鮮의 生命線問題이다。

그런故로 이三大漁業은 單純히 東海岸 百九十萬漁民과 三百萬住民만의死活問題에 關하는 것이 아니고 全朝鮮經濟界에 重大한 影響을 及하고잇는것이다 朝鮮이 農業國이라하야 누구나 입을열면 판에박은듯시 農村問題 農民問題 云云하고잇다 勿論 朝鮮은 農業國이여서 農村問題와 農民問題를 愼重히 取扱하고잇슴은 너무나 當然한일이나 最近 朝鮮의 水產業現象을 본다면 朝鮮은 水產國이라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 斷言하고십다。

露領 沿海州漁業問題 咸北漁船의 疲弊問題의 漁業權利의 爭奪問題는 單純히 漁業問題에만 그치는 問題가 아니다 이것은 水產朝鮮의 生命線問題이다。

東海岸을 中心한 漁業問題도 또한 東海岸의 巾着漁業과機船底曳網漁業(俗稱發動船데구리)을 中心한 利權獲得을 爲하야 京城을 基點으로 大小都市에는 大資閥이나 利權輩들이 暗中跳梁하고 잇스며 東海岸의 漁民을 欺瞞하야 多端한 事故를 이르키고잇스나 漁村의 한 風景으로되여잇다

그리하야 當局者들은 甚히 警戒를 不怠하고잇스며 特別히 東海岸水產業에 대하야 關心을 가지고잇는것이다

東海岸은 大水產業의 年生產高를 槪算한다면 鰮魚만 하드래도 今年只今까지의 生鰮의生產約八百萬桶이나 產出되엿다니 生鰮價를每桶에 平均三圓式 換算한다면 二千四百萬圓이라는 널만한 數字를나타내고잇다 이鰮魚를 製品化시킨다면 每桶에 六圓式 計算한다면 四千八百萬圓이란 莫大한 金額에 達한다

그리고 明太魚로말하면 最近每年平均 二十萬駄나 產出되는대 每駄五十圓式 하드래도千萬圓에達하며 鰊魚의數字는 자서히모르나 아마 五百萬圓以上의生產高를 나타내고잇슬것이다

그外鰊魚를 合한다면 年一億圓에近한生產을 하고잇스니 누가東海岸의 水產業이 偉大치아니하리오

都會의 街路를 風靡하고잇는 美人群의 얼골기나 입술기는 무엇으로서 美裝하며 眼鏡肝油나、로-도目藥이나 近代化學藥品은 무엇으로되며 南支나 北支事變에 利用하고잇는 爆彈이나 銃彈은 무엇으로서되여잇는가 이것은 모다東海岸漁夫들의손으로 特히잡어내는 정어리(鰮魚)와明太魚의 뱃다기속에서 나오는것으로되는것이다 그러면 이와가튼意義가기픈 東海岸 水產業에대한常識을 一般이 모두갓고잇는나하면 그러치아니다 아직까지도 水產業이만 一個漁村의 漁夫들의 하는일이거니하고 外面之하고잇슴이 一般識者들의 傾向이라고하여도 過言이아니엿다

이모든 實情에感하야 本社가今般率先하야 東海岸의 水產業을 紹介함에는 그意義가 김다고하지안흐리오 그러나 對內對外의 여러가지事情에 基因하야 資料의 不充分과 記事의不備함이 不尠하오나 多少間이나마 한갓諸賢의 諒解下에서 參考에供케하려한다

咸南道水產一覽表

(一) 業種別本道水產一覽

年次	漁獲高 千圓	製造高 千圓	養殖高 千圓	計 千圓	水產業者 專業戶	兼業戶	被傭者 戶數	合計
大正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 以上一覽表는 千位未滿의 端數를 取捨揭載한것

(二) 重要水產物漁期及漁具

種類	漁業時期	盛漁期	主要漁場	漁具又는漁法
明太魚	自十一月至翌年三月	十二月、一月	咸州洪原의冲合	機船底曳網、刺網、延繩、底刺網
鰮	自五月至十一月	七月、十一月	沿海一圓	巾着網、流網、瓢網
鯖	自五月至十一月	六月、十月	同	延繩網、流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重要水產物最近六個年漁獲高

種類	昭和五年	昭和六年	昭和七年	昭和八年	昭和九年	昭和十年
明太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重要水產製造物近六個年製產高

種類	昭和五年	同六年	同七年	同八年	同九年	同十年
素乾品 明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鹽藏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罐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魚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鰮油前渡金貸付表

昭和十年度末現在

支部別 區分	貸付 件數	數量	平均貸付額	金額	回收 件數	數量	金額	未回收 件數	數量	金額	未回收額에對한最終回收月
元山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湖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津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浦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昌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遮湖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仙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六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鰮粕前渡金貸付表

昭和十年度現在

支部區分	貸付 件數	數量	平均貸付額	金額	回收 件數	數量	金額	未回收 件數	數量	金額	未回收額에對한最終回收月
元山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湖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津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浦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昌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遮湖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仙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支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六年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0002482

家庭

고래와상어껍질로 훌륭한구두가돼

소가죽귀한이판에조흔대용품

구두、가방은 물론이고 가구 마구(馬具)기게에 군수품에이르기까지 가죽의리용범위는 퍽 넓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수품으로는 사변이래굉장히느러 금후로도 더욱 증가될경향이보입니다

그러나 일본내의 피혁자원(皮革資源)은 매우빈약해서 소화십일년도의 수입고는 원가죽껍데기만 이천사백사십만원이고 가죽으로매는물건은 오백육십만원 합계해서 삼천만원에 달하고잇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피혁원피(原皮)소요고의 칠할가량되고보니 이칠할을 외국서수입하고 나머지 삼할이국내에서 나는것인데 조선서나는것이 이가운데에 일할가량드러잇습니다.

그뿐아니라 과거의추세는 수요격증하는반면 국내생산액이주러드러 자급자족이란말은꿈에도 생각해볼수업는 형편인데 거기에다 사변이생기고보니 가죽을 구하기란 밥먹기보다어렵게되고 말엇습니다.

다행이 수산업(水産業)이대단한발전을 하엿스나수산피혁(水産皮革)은 오늘날까지 전혀볼만한것이 업섯습니다. 이것은 수산동물의 껍데기가가죽이 제혁하는데 부적당해서가 아니라 그수산물이 각기 적은어촌으로허터저서 잡히게되고 또변질하기쉬운수산물이라 공업원료로 만히집적할수업섯든것입니다 그러든것이 최근대자본경영에 의한 수산업의 발달로 냉장설비가보급되고 그원료의 수집이 쉬워지고 되어 비로소 생산피혁공업이 이러나게된것입니다.

수산물중에 상어나삼치니 하는 고기는 북해도저쪽으로부터 남양에이르기까지 여기저기 만히잡히며 일년내잽히는것이언만 종래로말하면그껍질은 모두버리다십히 햇습니다.

소화십년도 일본내지에서만잡힌것을보면 一〇四八七六六九관인데 한마리평균 십이관치고한마리에 四、四평(坪一坪은 一尺平方)난다고계산하면 이백삼십

만이천팔백칠십사평의 가죽이됩니다 여기에다 대만에서 잽히는것까지 이런계산을하고 합해서 따지고보면 二、九六、八〇九평의 가죽이생기는셈인데 한사람압해두평씩분의가죽이 소용된다고치고 일백이십구만명분이되며 소한마리를 이십평치고 일만사천마리의 소가죽분수가됩니다

상어는 바다의『갱』이니만치 잡을수록 수산업에공헌이되는바인데 아직은 잡은것을처리하는 정도이며 상어가죽의구두가 보급되는날에는 상어잡이배의발달을보게될것이고 따러서 잽히는것도 수십배될것은 확실한일입니다

그다음에 고래로말하드라도여기저기어디서나 만히잽힙니다 일년간에 삼천칠백마리가량이잡히는데 평균한마리에서 팔백평의가죽이나고보니 고래한마리가 소삼사십두폭은되며 따러서 일년에 사만팔천마리의소가 바다에서 잽히는폭입니다.

고래에는 여러가지종류가잇스나 말향(抹香)이란고래의껍질은 따딱하고 남빙양에서 잽히는고래의껍질은 부드럽습니다.

고래는 태생동물이라 번식력이적음으로 함부로 못잡게합니다 다만 아직 손안간바다가만흐니만치 생산액이 주를리는업습니다. 이외에 연어、농어와가튼고기의껍질도 가죽의원료가됩니다.

구두를짓는다하면 상어가죽에 고래가죽창을 부치게됩니다.

가죽으로본다면 륙지에서나는소、말、염소 이런것에도 다소차이가잇는이만치 좀 다르게보이기는합니다. 위선 수상피혁은 표면이따딱해서 만일 구두를맨든다면 키드나복수처럼 무엇에채일때 벗겨지는일이업습니다. 구지 결점을말한다면 육지에서동물의가죽처럼 주러드는힘이업고 느러나는점입니다만 이점은 가죽다루는법을 육지에서 나는동물의것과 마찬가지로하는까닭인테 이다루는법이 좀더연구되면 부드럽고 딱딱한문제는 자연히 사라지고말것입니다

미인교습소

사십여일만 다니면 누구나미인된다고

뉴-욕에 미인교습소(美人教習所)가 생겻습니다

교장은 젯스·더-스라는 모델계의권위로서 미인이되는 요소인 자세와거름거리와 화장의잡대비결을 가르치고 더욱가슴과 얼동이의 모양을예쁘게하는 운동방법과 식사방법을 교수하며 실현시킵니다.

교수기한은 육주간이며 그사이에 매일미인되는 방법만을전문으로 가르키는데 수업기한을 마치고 여기를졸업할때는 정말 했꼿도 현저울테가업는 훌륭한미인이된다는것이 이학교의간판입니다.

아무러커나 무서운세상입니다 미인교습소 졸업생에게 정혼해볼 모-던보이는업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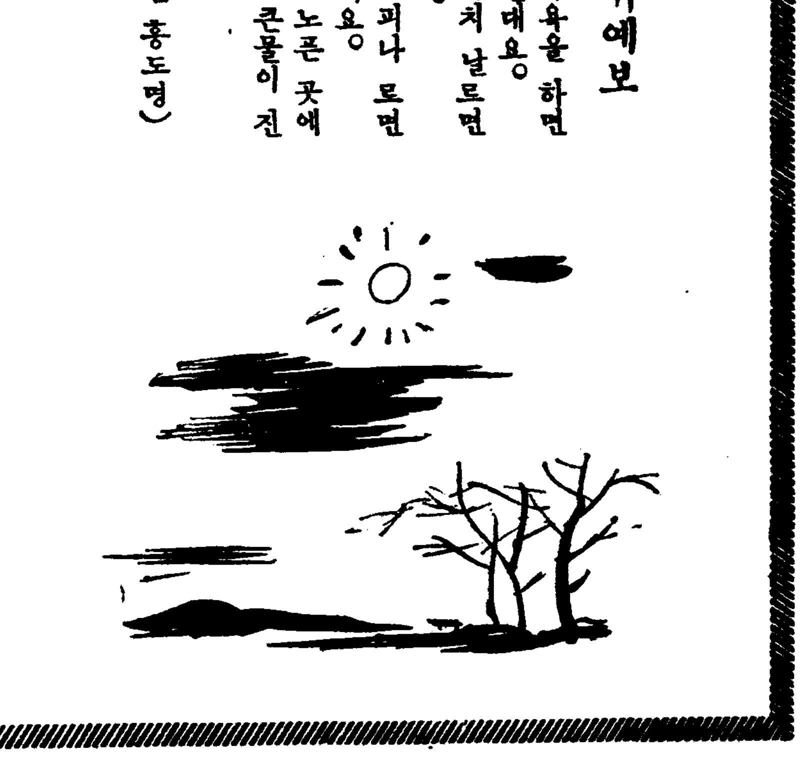
신부는 미인이라는것이 보증되어잇답니다.

우리차지

새의천기예보

참새가 목욕을 하면
날이 조와진대요。
제비가 야치 날르면
비가온대요。
솔개가 노피나르면
바람이 분대요。
까마귀가 노픈 곳에
집울지으면 큰물이 진대요。

(공든사람 홍도명)



주름진얼굴에 씩씩한우슴

로인들도운동을해봅시다

그러나과격한것은납버요

물건은 무엇이나 전연 쓰지안흐면 속히 탈이납니다。사람도 이와마차가지로 몸을 쓰지안흐면 일찍늙어 버리는데 더욱 조선사람은 옛날부터 운동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사십만 넘으면 의례히지팽이를 집고다니도록 늙엇서스니 지금은 일반으로 활동을만히 할으로 그러치안습니다。그러나 지금도 운동이라던지 경기가튼것은 젊은사람들만이하는것으로 아주국한되다시피 생각하야서 노인들의 건강이 말이못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노인들의 과격한 운동입니다。

대체로 노인의 신체는 혈액의 순환이 나쁘고 혈압이 노파서 골격도약하므로 여기에 과격한운동을하면 도리어 해롭습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에게 적당한 운동은 무엇일가 여기대하야 이때까지 소홀히생각하고 잇스며 누구나아라보랴고도하지 안햇습니다

노인에게 적당한 운동은첫재 전신의 근육을 피로하게하지안흘정도로 하고 혈액을 조절할수 잇는 운동이여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는대로적으면 라디오체조가잇는데 이것은 대단히조흐나 취미가 틀지안코너무 단조한것이 흠입니다

그러므로 권하고시픈것은 산보입니다 산보는 완만하게 느린동작을하면서도 혈액순환을도우고 노인들에게 흔히잇는기침과 폐장의호부에 물이채여잇는병가튼것은 간단히낫습니다

하로에한시간식 산보를하는것은 취미적이며 위생적입니다 그밧게 정원의김매는것도 조흔운동이되므로 아이들에게만맷겨두지말고 곳실행하십시요

목욕하는것도 노인네에게는한가지운동인데 적당이 혈관을확장시키는것이 동맥경화(動脈硬化)에 조흔자극을 주는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뜨거운물은 조치못합니다

흔히 옥수수속을말리여 두엇다가 그것으로 등을 긁는노인이잇는데 신진대사가 약한노인에게 너무지나친부위 자극은 조치못합니다

그리고 장작가튼것을 쪼개는것은 체력에만 자신이 잇는노인이라면 대단히조흔운동입니다 옛날 전세계를 장중에너흐랴던 독일의카이제르는 지금엇청나게 늙엇스나 화란(和蘭)의촌에서 지금도 장작을 쪼개여가면서 지나갑니다.

노인의 취미는 젊엇슬때취미의 연장이 아니면 안됩니다 늙어서 새로운 취미를 갓기게되면 신경에탈되이업스므로 곳 신경쇠약에 걸리는것입니다。

노인에게 나쁜취미는 바둑두는것입니다 머리를 과히쓰고체력과 식욕을감퇴시킵니다.

조흔취미는 적당한독서입니다 쓰지안흔 쇠에 녹이슬듯이적당히쓰지안는머리는 그만바보가됩니다

그러므로 사폴들이는 일직늙고 지식계급의 노인은 비교적오래사는것입니다

부인네옷에대한좌담회 ①

사람은 옷이날개 어떠케—해입어야할까

의상미를무시해서는안되나 사치한기풍은업새자

成尙勳 날세도 춥고 더구나 길이진데 이러케 만히 오서주어서 대단이 감사합니다。그런데 오십시사고한말은 미리 청첩에도 말슴한바와가리 의복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듯고저하는것입니다。서양서는 식 의 주라고하고 우리는 의 식 주라고하지마는 하여간 이세가지 문제가 우리생활에 중요하다는것만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일반일줄로 암니다。그래서 최근에 이문제에대해서 엇더케하면 개선이나 개량을할수잇나 하는것을 여러방면으로 논의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긴급한것은의복문제가 아닌가고 생각합니다。의복문제라면 물론 빗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것도 문제가되지마는 그것보담도 요사히 가마니보면 일반가정부인들이 의복에잇서서 넘우 사치하고 부화한 폐풍이업지안흔것갓습니다。

出席하신분(無順)

- 京城保育 許河伯
- 女子基督 兪珏卿
- 誠信女校 李淑鍾
- 技藝家 裵祥明
- 培花女高 李萬珪
- 音樂家 洪蘭坡
- 醫師 李聖鳳
- 畵家 金瑢俊
- 小說家 李泰俊

時日 一月十八日밤
場所 本社貴賓室

가령 례를든다면 의례히 비단치마나 비단두루막이에 여호목도리를 둘러야만 외출을할줄아니까 이러한 풍습은우리 일반가정의 경제생활로나 또는 사회풍교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줄로압니다。그러타면 이러한 풍습을 우리가정경제상으로나 또는 사회풍기상으로나 어떠케해야 교정할수잇슬까 그밧법에대해서 여러가지 조흔의견을 드러서 신문에내고십흔데 여러분이 말슴을 잘하시도록 구체적으로 리-드하는것은 우리신문사 학예부장 홍기문씨가 마터보겟습니다。될수잇는대로 조흔의견을 만히말슴해주시기를바랍니다。

洪起文 본사측으로서도 별로 엿주어볼만한 제목은업습니다。그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바를 멧가지 드러서 여러분의 조흔의견을 듯고저하는데 대체로 우리의복은온돌방에서 생활하는사람의 옷이라 자연 활동하는데는 편리하지못합니다。거기대해서 유각경선생이 먼저 말슴해주시지요

兪珏卿 저는 키도 제일적고하니까 적은사람이 먼저말하는 것보담 여러분이 먼저말슴하신뒤에 나종에 말슴하겟습니다。(일동대소)

洪蘭坡 그런데 잠간붓겟습니다 의복이라면 남녀공동의복문제가아닙니까

洪起文 물론그럿습니다。

兪珏卿 저더러 먼저 말슴하라고하시니 평소에 생각든것을 멧마디말슴하겟습니다 대체로우리 녀자의복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다 미술적이라는 충찬을 밧습니다。그런데 우리의복이라면 두가지로 구분해볼수가 잇습니다。하나는 긴치마고 또하나는 짧은치만데 한동안은 짧은치마가 아주 유행을하더니마는 요새는 또 긴치마、보선 신는것이 번성해서 신녀성들도 가정부인이되고보면 긴치마에 보선울신고 두루매기에 여호목도리 두루는것이 보통입니다。그런데 제경험으로보면 사실 우리는 온돌방에서 생활을하는만큼 집안에서는 짧은치마에 양말을신는것이 불편합니다。더구나 겨울이되면 짧은치마에 양말울신고 외출을햇다가 집에드러가면 마루에올라설때 첫재발이 시리고 치워서 긴치마에 보선을 가라신습니다。그러나 긴치마를꼭 장입자면 경제적으로는 여간불경제가안입니다。첫재치마한감에도 이삼십원드러야하지요 그우에 두루메기를입고 여호목도리까지 둘느면 여간 불경제가안입니다。그러니 자연 사치하게되는데 이러한 사치하는 페풍은 될수잇는대로방지해야할줄압니다。

그방지책으로는 첫재 교육자에게 그책임을 지워야하겟습니다 물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치하라고 식히는것은아니겟지마는 학생들이 졸업을한뒤에 그러한사치를하지안토록평소에 주의를 식히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리고 가정부인들이 작고만 화류계의 본을뜨게되니까 그러한 사치의 페풍이 생기게되는것가튼데 첫재는 학교에서도 잘교육을시키고 또 가정부인들이 자각을해야할줄압니다.

李萬珪 그것은 아마 학생들이 이중생활을하는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가령 예를든다면 제가아는학생에이런일이잇습니다。학생아버지가 엇더케 완고하든지 학교교복을 입히는것을 실혀해요 그래서 딸이 학교에갓다가오면 교복을벗기고 긴치마에 보선을신깁니다。물론그학생은 실치마는 그아버지등살에 허는수업시 그러케되니까 그학생이 중학을 마치고 전문학교까지 마치도록 이러케 이중생활을 해왓는데 그러니까 나종에 가정부인이되면 긴치마를 입게되는것이아닙니까、그러니 결국은 학교에서도 독려을하지마는 일반가정에서도 주의를해야하겟지요。

兪珏卿 제말은 의복사치에 대해서 한말이지 의복모양에 대해서 한말은아닙니다。

李萬珪 그러나 의복사치라면 결국 그모양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젊은 치마는 목면이나 아무것으로 지어입어도 괜찬치마는 긴치마라면 회회 감겨야하니까자연 주속으로 해입게되지안습니까?

짜른치마

中篇小說 女人命令 【25】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別離 (十九)

상봉대합실은 언제나 정러와가리 분주하고 여러가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가난한봇다리가 그기다란 행렬에 느러노혀 낫잠을 잔다。

숙채는 한쪽다리를 들어걸고 몸은 어느듯 봇다리에 딱-의지해서 평안히 안저잇섯다。

점점 봇다리가 한쪽으로 쏠려지고 몸이 사뭇 드러누어지는 편이나 숙채는 그런것도잇고 눈은 그대로 수업이 틀린 사람들의 얼굴을살피엿다。

보다도 눈코입을 가춘얼굴을 이로되 그어느것도 숙채가 찻는 얼굴은 아니여서 헛되히눈꺼풀만 무거워온다。

숙채는 깜아케 때가 오른그나무걸상에 그대로 누어 잠간 눈을붙첫스면 깨고수-하게 잠을 이룰것갓다。

그러나 이러케 피곤하고 푸러지는 육체와 반대로 마음은 갈피갈피 멍이든것처럼 아프다

숙채는뻐-야케 담배연기가괴여오른 대합실의 불결한 공기를 마셔가며 그대로 명순더안잇다。유원이는 상등객차로 맨압차에 탓다。말하자면 식당 바로 댐차다。

숙채는 혼자서 그긴 플랫폼을 걸으면서 이제 방금 떠날차보롤하는 차에 투리창을 넘어 그안을 살핏다。어느것이나 꽉꽉 다지게 사람을 실은것이 것데서 보아도 알겟다。

숙채는 작은 봇다리 하나만 든 빈몸이라 그리 몬저타겟다고 덤빌것도 업서서 첫 차ㅅ칸부터 차츰 차츰 보아내려가는데 어느 칸에나 다만원이여서 할수업시 맨 끄테 칸에까지 가게되엿다。

마츰 그칸엔저-쪽끄테 한자리가비엿슴으로 숙채는 얼른거기가서 짝안젓다。

한참동안 서로 조흔자리에라 겟다고 뎀비는통에 숙채도 한목 보느라고 다소애를 쓴모양인지 이마ㅅ전에 가는 땀이내 유쾌햇다。『때르르릉——』

저 차ㅅ시간을 기대리는수밧게 업다。

『집으로가나?인천으로가나?』

아직 차표도 사지안흔 숙채는 세시에서 몃분남지안흔 시게만 처다보며 미간을찡겻다。

인천으로 가나 집으로 가나 그어느한쪽에도 숙채는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아피 캄캄하고 막연한것밧게업다。

『다시 유원이가 사는 한울— 그러한 하늘이 이세상에 잇슬상십지안타』

숙채가 이처럼 실의(失意)를 하게되는것은 이번 유원이의 모든행동으로 보아 거의 움직일수업시 어떤불행이 오는것을 직각햇기때문이다。

『이거 멍큰일나구나 내레 남은 고무신을 안개지구 왓구나』

『오마니레 개지구 온댓디。와 안개지구왓노』

이러케 짓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 숙채는 발딱 이러나 표파는데로갓다。

『집으로 가는 표를사다』

표를 사서 손에 꼭 쥐고나니 행결 마음이 가벼워저서 어정어정 도라다니며 아무데나기웃거렷다。

이욱고 시간이되여 숙채도그기-다란 사람행렬속에 가서끼여섯다。아페서는 벌서 가위ㅅ소리가 딸깍거린다。

그런데 이출구말고 다른 출구로 나간사람——그사람은 즉 유원인데 그도 지금 이차를타노라고 벌써 나가서 차를타고 떠나는 시간이 신경을 밧짝 옥으려 놋는다。숙채는 그적게 유원이를 차저서 이정거장에이르럿슬때 그출집는 마음이 지금 이석탄이 차힌 구내를 지나며 다시 생각나서 또다시얼골이 호려진다。

『어듸까지 가십니까?』

『………?』

숙채는 잠간 자기아플 바라보니 바로 마즌편 걸상에 웬 신사가 대단히 인상이 조치못한 얼골을 들고 숙채의게 말을 건느는것이다。

숙채는 별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안허 그냥 잠잣코 머리를 돌렷드니 이자가 또무에라 고한다。

『실례올시다만은 어느학교에다니십니까。그러찬으면 혹 어듸 근무라도하고게십니까?』

숙채는 약간 눈을들어 그자의 얼굴을 훌터보앗다。그리고 어듸 다른데로 자리를 옴길생각을햇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하나만 까거보십시요』

이신사가 또다시 배와 칼을 내미는통에 숙채는 그만 속이발끈뒤집혓다。그래서 유원이의 두루막이와 모자가 들어잇는 그보통이를 들고 다음 차칸으로갓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이 꼭차고 한자리도 업슴으로 할수업시 그칸을 지나서 그다음칸으로갓다。

이칸에는 유원이가 타고잇는데다。

애기를못배는것은 대하증이흘으는 자궁병이잠복된탓

병원에가지안코도 자기집에서남몰래 손쉽게곳치고애기를날수잇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던부인이라도 다년간가정생활을하고 부모와남편시중에골몰하시면 신체가점점허약해지는고로 부인에게따르는모든자궁병이발생하야 대하증이흘으게되면 애기를못낫케되므로시집살이에재미를못보고 부부간정리조차엷버저서불화하게됩니다

대하증으로인하야 남편에게대할면목이업서

平壤 金〇淑氏

처녀시대에 아무것도모르고몸단장을잘못하고 월경시에도조섭을잘못한탓으로 결혼전부터 대하증이잇섯지마는 그때에는처녀의몸으로 부모에게나 동무에게도 부끄러워서 말도못하고 혼자근심거정을하며 지내든중에결혼을하고보니 대하증은점점더하야 냄새가심히나서 숨길내야숨길수업시 누구든지자궁병이 잡복된것을알게되니 참말로 시부모와남편에게대할면목이업섯습니다。

아!이처럼 대하증이흐르고 수족이어름가티냉하고 허리와아래배가아프고 밤낫으로근심을하며 울음으로만 지내든 내가 『명지모』와『오기나구』를 한달동안 복용하고이가티깨끗이곳치고 건강하게되여명랑한 가정생활을하게될줄은 꿈에도생각지못하던일입니다

나는 시골구석에서 부인병으로은근히고생을하는 동무들이나농촌부인에게 꼭 이치료법을권고하고자합니다 지금도남편과결혼당시에 대하증으로하야 혼자서고통을하다가 곳친말을하며즐거워하든중에남편이 말슴하기를그러면 감사편지라도 속히써서보내라고하기에 지금붓을들고두어자사실대로썻습니다。참으로 요새는 즐겁고재미스럽게지내는우리들! 신가정의재미를 달콤히맛보며 감사를드리나이다

자궁병은 꼭낫습니다

여러분가운데 나는 엇재서애기를못낫는가하는말삼은 평화한가정의주추돌이되시여 시부모와남편시중에골몰하시는 젊은부인들의애닯흔하소연이며 설움과바대를한목에등지시고 말삼하시는 눈물겨운고할일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자기의팔자나전세의인연이라고 신세한탄을하시는모양인데 근래와갓치 발달된때에 자궁병을근치못할까닭이업습니다 여기서 자궁병으로하야 결혼한지 三년、五년이지나도록 애기를배지못하는부인이잇스면 틀림업시자궁병이잡복된것이니주저말고 모든완고의폐풍을 거더치고 여러가지신용업는 약광고에속지말고 부부협력하야 동경에잇는『명지모』와『오기나구』를쓰시고 조섭을잘하면근치되여 귀여운애기를나으실줄밋습니다

이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오려서東京市京橋區八丁堀、笹岡藥房으로보내시는분에게조선말로알기쉽게자세히쓴부인병자택치료법책과명지모의설명서를 누구에게던지 한권식거저드리오니 ×× 약을주문하야쓰고자하는분은 로맛비청구하시기바라나이다 ×× 약을주문하지안는분이라도 병세를자세히써서 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보내드리오며 또한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 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 편리한방법으로 약을주문하야쓰시기바라나이다。약가는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頭腹腰痛 手足冷症 帶下症等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二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廿七日分	三圓
	卅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 本舖 合名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一八八七番

日活 黃金座 日活
國民皆兵令 2·00 6·30
朝日京日ニュース 11·00 3·10 7·40
杉狂兒·星玲子主演 あたし幸福よ 11·30 3·40 8·10
ジエシー·マシューズ 君と踊れば 12·30 4·40 9·10
暖房完備 二十日ヨリ五日間
今週ニ限リ早朝入場大人先着百名樣ヘモダン百科日記進上ヰマス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乙旗ウエルセル映畫社超特作 日本語版 ヤンキー ドリー氏主演 ヴエルダン白兵戰
水島道太郎·琴糸路主演 進め皇軍
大谷寺八郎·琴糸路主演 浪人街の顔役
十八日ヨリ二十一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優美館 黃金町 電光九五三
一月廿日부터特別大興行
爆走三萬哩
君と行く路
劍雲修羅城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二三六四(事務室專用) 二一五四(劇場現場用)
劇團靑春座公演第三週 一月二十四日부터(七日間夜間만)
上演藝題△ 冠岳山人作 『아버지는답답해』一幕
李瑞求作 『꽃피는故鄕』三幕四場
李雲芳作 『사랑하는까닭에』全五幕
毎夜七時開演 △次週斷然上演△

團成社 電光九九五番
高野由美、歌川八重子主演 花ひらく園
R·K·O超特作音樂映畫 世界의歌姬
新興大泉特作映畫 支那事變特報

若劇 一月十九日より五日間
軍艦に榮光あれ
題名のない映畫
大每朝日ニュース
世紀の逃亡者
暖房完備

讀史餘錄……◇

漢◇史◇片◇鱗

(一) 崔達海

以夷制夷의策

以夷制夷는 반드시 漢人의 專用的 外交手段이 아니다 마키비엘리즘이 橫行, 蔓延하는 이 世上에서 이른바 國際의 均衡이니…平和니 하는 美名下에서 無限制하게도 鮮血의 雨를 降下케하야 漁夫의 利를 取拿하라는 一流의 國策은 그것이 또한 以夷制夷의 策略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나 아닌게아니라 以夷制夷는 支那外交家의 常用的 手段인 同時에 그들의 자랑하는바이지마는 그根源을 史的으로 溯考해본다면 後漢의 班超에까지 올라갈수잇다 前一四〇年에 卽位한 西漢武帝는 漢朝의英主로서 오래동안 凌遲된 國力을 모라서 域外征伐에 힘써서 北으로는 匈奴를 驅逐하고 西方으로는 中央亞細亞、印度等 諸族과 交通하야 크게 漢族의 威武를 떨치고 祖先과 國民의 恥辱을 씨서 버렷다 當時의 餘威를 繼承하야 一五〇年頃에 西域諸外國에 對하야 漢族의 勢力을 크게 넓힌者는 우에 말한 班超인데 班超는 그西方諸夷를 征服하자 그雜多한 族類를 制御、驅使키 爲하야 한 妙案을 案出한것이 곳 以夷制夷의 策이다 이것이 그當時에 잇서서는 퍽지 안은 功果를 어덧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妙案、奇策도 運用者의 實力과 時의 支援을 가지지못하면 그 結果는 失敗뿐이다 宋의 聯金滅遼政策은 오래동안 遼(契丹)의 侵入에 못견되어서 當時 北方에서 新興한 金人과 連合하야 遼를 挾擊하야 滅亡케햇스나 도리어 金의 毆辱을 招하야 北宋은 孤立하야 抵抗치못하얏다

이러한 失敗의 前轍을 鑑하지못한 宋은 그後 世界를 席捲하라는 蒙古人의 勢力을 비러서 累代讐敵인 金人을 滅하얏다 그러나 金人은 滅하얏지마는 그보다 더큰 대적인 蒙古와 直接 國境을 서로 다케된 結果 以夷制夷의 國策은 도로혀 宋의 滅亡만을 가져오게된뿐이엇다

漢子와鮮卑語

西紀二八〇―五八九 約三百年동안은 支那에잇서서 近世漢人이 이른바 南北朝時代이다 匈奴、羯、鮮卑、氐、羌의 五種의 胡人들이 서로 前後하야 漢土에 侵入하야 各各 나라를 세우니 西北二方面의 漢土는 漢族의 手를 떠나게 되엇고 漢人을 主權者로 한 晋朝와 宋、齊、梁、陳 四朝는 모두 揚子江南에 退却하야 現今 南京 當時 建康에서 偏安을 누리게 되엿섯다 이 時代에 잇서서 「大漢」「强漢」이란 自負的 稱號를 가진 漢人의 子孫도 北狄이라고 輕蔑하던 胡人에게 도리혀 「漢子」란 賤稱을 밧게되엿다

當時 北朝의 하나인 北齊에 顔之推란 博學、才識의 한 學者가 잇섯는데 그의 지은 「顔氏家訓」中에 가로대 齊朝의 一士夫가 일즉 내게말하되 나는 아들하나가 잇는데 나이가 十七歲다 書疏를 자못 通解한다 나는 鮮卑語를 가르켯다 또한 琵琶를 잘하게 가르치니 그것은 이 두가지로써 公卿에게 服事하면 그들에게 寵愛를 밧지못하는것이 업슬것이다 나는 그때 머리를 수기고 아모 대답도 안햇다

鮮卑語는 卽 當時 北支那에서 北朝諸國의 主權者로 알리든 胡族의 國語인 同時에 北支那에서 勝利的地位를 가진國語이다 當時 北支那의 漢族은 一種事大的으로 자랑하든 自己의 國語를 두고 從來蔑視하던 鮮卑語를 배우고 또 胡族의 末技를 배워가지고 鮮卑人의 權臣公卿에게 阿諛하라는 그情景이야 實로 數千年間 漢人으로서 처음 일이 아닌가! 그러면 北支那에잇서서 漢族의 混血、融合의 狀態는 果然 想像以上의것이 아니엇든가

獨學의最高典型

花潭徐敬德小傳

―그의遺蹟保存問題를機會로―

(下) 李殷相

花潭의 生涯는 그의高潔豪放한 性格으로 一貫하엿다고 본다 性格이 그러하므로中宗時에 厚陵參奉을 除하엿스나 不起하엿고 性格이 그러하므로 學問에잇서서도 前人의轍을 밟지안햇다.

糊口도 못하면서 泰然히 안저 道를講하고 絶世의 佳人아페서도 心緖를 不動하엿다는 逸話로부터 交遊에이르기까지 그는 自己의 高潔豪放한 性格을 發揮하엿다.

曹南冥은 山藪에 隱伏하고 李土亭은 江河에 漂泊하야 後世에 다各各 特殊한 一家의地盤을 세운이들이어니와 三家ㅣ成大谷과더부러 報恩에서 對床連話한一事는 李相國浚慶으로하여금 歎하게한것이다.

修身網領을 講하지안햇스므로 다른儒者와 그길을 가티하지안흔것은 다시말할것이 업거니와 그의學問이 또한 前人을 踏襲하거나 模倣하재로 杵撰하는者가 아니엇스니 그도또한 凡儒와 그價値를 달리하는것이라할것이다.

지금 세상에 行하는 花潭集은 그의遺著로서 原理氣、理氣說、太虛說、鬼神死生論、後其見說、天地之心、溫泉辨、聲音解、跋前聲音解未盡處、皇極經世數解、六十四卦方圓之圖解、卦變解及擬疏、序、書、字詞、銘、詩等 若干篇을 收載하고 附錄으로 碑銘、遺事等이 적히어잇거니와 그의 哲學思想의 中心은『原理氣』와『鬼神死生論』에 잇다고 할것인바、太虛、淡然無形、號之曰先天、其大無外、其先無始、其來不可究、其淡然虛靜、氣之源也(原理氣)라하야『氣』를 最高原理로 把持한것이다.

그러나 여기 退溪의 말한바와가티『氣』를 認하야 비로소「理」가 生한다 한것은 花潭의錯見이라하야 큰問題가 提示되기도 한것은 다른이야기로 남겨두고 그의鬼神死生論을 通하야 學問에對한 自己의 獨特한 見解와 및 그自得自負의 最高良心을 나는 陳重히 여기고저한다.

『程張朱說、極論死生鬼神之情狀、然未嘗說破所以然之極致、皆引而不發、令學者自得、此後之所以得其一、而不得其二、傳其粗、而不見十分之精』

이라하야 程、張、朱 三說에잇서서도 不滿을 吐露하엿을뿐아니라 論中에 또말하되

『雖三先生(原者曰程張朱)之門下、亦莫能措諸極、皆拾粗粕爲說爾』

라하야 世間學者들의 不精不確한 前人踏襲의 非良心的學者들을 痛罵한것이다.

또한 論末에 自識하엿스되

『稍述鄙見、貽朴公頤正許君太輝及諸來遊於門者、此論雖辭拙、然見到千聖不盡之地頭爾、勿令中失、可傳之後學、遍諸華夷遠邇、知東方有學者出焉』

이라하엿다 이것은 一蔡聲에 不過하는것이라고도 하겟스나 그만큼 그는 自己獨創의 硏究를 發表한것과 거기隨伴한 不屈의 自負心으로 披瀝한것이라고보는 點에서 나는 그를 尊敬하고저하는者다.

그의門人이던 許曄이 退溪도는栗谷과 더부러 花潭의學說은 邵雍程朱를 兼하엿다는 主張으로 互相爭論한일도 잇섯거니와 如何間그는 獨學創見의學者인點에 그의特色이잇고 生命이잇는 이임은 再論할것이업다

道學에 眞正한 趣味를어더 榮辱에 고개숙이지아니한 그이로되 卒後에는 처음에 戶曹佐郎을 贈하고 宣祖時에 門人朴淳、許曄等이 加贈을 請하야 드듸어 右議政을 贈하고 諡를 文康公이라 賜하엿다.

現存한 그의遺蹟으로는 그가 世居하던 開城에 後人이 花谷書院을 建하야 그를 享祀하여와고 그의遺蹟에 … 이 잇써 그의 世俗한 呼吸의 遺香이 머물러잇다.

○……○

花潭의卒後 四百年이되는 今日에와서 그의遺蹟이 不鮮明한上에 오른거된것은 遺憾된의 일이지안흐면안될 事實이라하려니와 나는 이러한問題가 잇슬적마다 朝鮮人全體를 向하야하고 싶은말이 잇슴을 참지못한다.

오늘에와서보는 花潭은 決코 徐氏門中의人物이아니요 儒林先賢의人物이아니요 開城世居의人物이아니라 朝鮮史中의 人物이요 朝鮮人의人物인것이다. 또한 이가튼말은 花潭一人에對한말이아니라 모든古賢古哲에 다가지는 나의持論이다.

將來를 期約하는 社會일스록 더욱더 지나간 偉人學者들의 遺蹟을 아름다이 지켜야 할것이다. 이것이 한文化의 根本을 傳하고 또 차즐수잇는 가장緊實한 一方途이기때문이다.

――一月十八日――

擁爐漫語

點睛과蛇足

③ 朴泰遠

내 한篇의 作品을 制作할때마다 마음은 恒常『畫龍點睛』의 故事를 醉讀하게 생각한다.

張僧繇라이가 金陵安樂寺에잇서 兩龍을 그리되 睛을 點하지아니하고 每每이르기를 點하면 곳 날러가리라 하니 사람이 妄誕이라 하거늘 因하여 그하나를 點한대 須臾에 雷電이 壁을破하고 一龍이 하늘로 올러갓다……

이는 곳 慶州 皇龍寺에 傳하는 率居의 老松이야기와 함께 그 그림그리는 재주가 入神하엿슴을 말하는 傳說이거니와 바랄수잇다면 우리의 짓는 글도 또한 率居의 솔나무가치 그곳과 情이함께 逼眞한것이잇서 읽는이의 心琴을 참말로 울리우고십다.

×

그러나 이를테면 우리는 龍을 그리되 睛까지 點하려 그만큼 慾心이 크지안허도 조흘것도 십다. 다만 배암을 그리매 발을 더하지나 말기를 恒常 꾀하는것이 分數에 맛지나 안흘까.

猫猫이 닭은 짓궁을 본치려할때、밧듯이 훤이 버리고 몸을 일으켜 압발로 버쳐 느는것은 제몸을 더욱이나 크게 보여 그敵을 威脅하려 함이라 하거니와、우리 젊은 文人들에게서도 이傾向은 쉬웁게 차저볼수 잇슬것 갓다.

이는 아속 그 배운바가 의지못하고 아는것이 적은탓이라 하겟스나、그러하기에 도리혀 아는것이 만흔듯시게 꾸미려하여 꼿꼿내는 깨닷지 못하고 배암에다 다리까지를 더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구태여 그例를 들은데서 求하려 힘쓸것 업시 나의 이글이 곳 그러한것의 가장 適切한 例일것이나 恒常 말이 만코 글이 수다스러움을 남은일으고 나도 눈치채건만 아즉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것은 곳 나의 재주가 그에 미치지못하는것이라고 할밧게 업다.

×

요잿사람의 글이라고 모다가 蕪多하다는것은 아니나 예잿사람의 글을 볼때 그 簡潔한 품에는 배울것이 적지안타.

내가 近來 다시 東周列國志며 今古奇觀等을 뒤적어리는것도 小說工夫를 전혀 爲함이거니와 되는대로 한대문을 골라다읽는 가튼데에서도 우리는 적지아니 배우는바가 잇슬것이아니냐.

虞人 百里奚는 世上을 건지는 재주를 품엇스면서도 밝은 人君을 맛나지 못하여 그 큰뜻을 펴지못햇다.

虞公이 나라를일흠에 그는벼슬을버리고 나라를떠낫다. 莫逆의벗 蹇叔이 宋나라 鳴鹿村에 잇슴을 아는 그는、이제는 그곳이라도 차저갈밧게 道理가업섯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이르기前에 楚나라 宛城따에서 野人에게 細作의嫌疑를바더 묵긴다. 다음에 引用하는것이 바루그뒤의 一節이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야 엿다"

『나는 우나라 사람이요. 나라이 망하야 이곳에 일은것이라오.』

마을사람이 그에게 물엇다.

『무슨 재주를 가지셧소?』

백리해는 의론히 웃고 대답하엿다.

『내 소를 잘 치오.』

사람들은 그로군것을 풀러주고 다음날부터 소를 먹이게하엿다.

(奚曰我虞人也因國亡逃難至此。野人問何能。奚曰善飼牛。野人釋其縛使之飼牛。)

우리들더러 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事件을 叙述함에 數倍의紙幅을 要하엿을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結果에잇서 無數한 術字、術文을 갯지게 지어내는것에 不過할것이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五)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illegible]公立[illegible]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早러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京城工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五日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理科

京城女子師範學校

一、募集人員 演習科 百五十名 講習科三百五十名 尋常科二百名
一、申請期日 二月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二月廿二日至二月二十八日
一、試驗場所 同校

小文庫

趨庭錄 (八)

背子와馬掛子

袋山生

東槎漫錄에 尹明谷 格이 術數에 밝아서 前頭事를 能히 豫料햇다고 말하다가『公嘗曰明宗末宣祖初。南草初出。終有壬辰之變。昏朝末今上初。爭着褙子。無乃北虜相通之兆耶。未久其言果驗。』이라고 이야기하얏다。即明宗末宣祖初에 담배가 들어 온뒤 壬辰亂이 잇섯스니 光海末仁祖初에 褙子가流行함으로 보아서 滿洲와의 關係가 생기지안켓느냐고 하얏다는말인데 褙子미레는『뒤러가리』라고 우리말로 註를 달앗다。褙子란 무엇인가。아니『뒤러기』란 무엇인가。그러데 지금 우리가 입는 마고자는 本來 滿洲人의 馬掛를 輸入한것이니 마고자란말부터도 馬掛子의 訛音이다。맨처음 滿洲人들은 馬上에서 입는 外衣라고 하야 馬掛라고 하든 모양이나 실상 나종에는 남을 訪問할때나 점잔흔 손님을 볼때 一種의 禮裝으로 삼어왓다。그러면 何如든褙子란 곳 마고자가 아닐까。그것을 그前에는 우리말로 등거리(등근기)라고불렀든 것이아닐까。 마고자는或팔배 或배자等 지금도 여러가지말을 따로 쓰고 잇는데 배자는 褙子로 背子라고 쓰나 背子란옷은 따로 잇스니 宋人 程大昌의 演繁露에서『今人服公裳。必裏以背子。背子者狀如單襦袷襖。特其裾加長。直垂至足焉耳』라고 한 것이 곳 그 것이다。『其裾加長。直垂至足。』의 說明으로써 본다면 背子란 옷은 도리어 오늘날 僧尼의 長衫과 비슷한 것으로 마고자와는 全然 다른 것이어늘 어째서 마고자를 배자라고 불럿든지 모르겟다。더구나 옛날에는 우리네의 婦人들이 참말 背子를 입은 證據가 잇스니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國家四時大享。前期七日未明。聚執事于議政府。具公服。受誓戒。一朝官不知例。時服詣焉。見諸執事具公服。奮黃走從者。取室人息色闊袖背子。又無幞頭。傍乞笠帽車錄事頭巾。就班。恐懼宜紗帽。低回賤蹉。朝官体小拜跪將興。大袖委地。蹤踏而跌。共睹觀之。乃婦人服而錄事巾也。衆皆失笑。背子俗所謂長衫也』라고 한것이 곳 그 것이다。

그러니까 참말의 背子란 그것은 別것이 아니요 지금 僧尼들이 입는 長衫이다。또 그러니까 그 전에는 長衫이 오죽 僧尼의 專用하는 服色이 아니요 一般 婦人네의 옷이엇든 모양이다。그後에 長衫은 一般으로 입지 안코 마고자가 새로 들어 오매 一部에서는 옛背子의 이름을 빌어서 마고자를 일커럿든 것도 갓다。長衫과 마고자의 形体는 勿論 팔팔결 달른 것이 事實이겟지만은 普通옷을 입은 그 우에다 가 덧입는 點만은 서로 一致됨으로써 그 一致點을 미루어서 그러케 하얏슬수도 업지안타고 생각된다。

海印寺紀行

第五信·大藏經閣에서

咸大勳

얼마를 기다렷스나 나려간 僧侶는 오지안코 거기 聚落官出張所首席 吉行部長이 올라오다 來意를 告하니 氏는 親切히 나를案內해주엇다 大藏經閣을 구경잡지門이 열리엇다 大門을 드러서 바로 창살이 金閣을 둘러싼 藏經閣의 모양을 興味깁게보며 經板을 陳列한 門을 드러섯다 二棟六十個間을案內해 陳列해을 만들고 마치 書籍을 차곡곡 쌓듯이 나라히 經板을 陳列하엿다.

여기는 國刊板의 陳列室이다 世界三十種의 藏版中에 第一聲價를 밧는다는 이國刊板을 나는 손을들어 몃개를 끄내서 이리보고 저리보면서 이國寶의 香氣를 다시금 敬虔하게 마쿠수잇다.

元來 이國刊板은 正本補本이 잇는데 距今七百二年前 高麗三十三王 高宗二十四年丁酉에始作하야 本司는 江華島에 分司는 晋州에 두고 十五年間이나 繼續하여 同三十八年 辛亥에 完成한것인데 李太祖戊寅七年에 이海印寺로 移藏한것이라한다 板數八萬一千二百五十八枚라는 彪大한 寶物로써 나는 다시보고 다시또보고 매번이나 그經板을 들고보고 노코보고하면서 그옛날佛敎文化隆興하든 時節을 생각하고는 國家的으로 이文化開發에努力한功을 다시금 感激지테 바라보앗다.

蒙古兵의 侵略을 當하다못해 江華로 遷都하든第六年……이파 눈물속에 맨드러진 梓木의 이經板 縱이 九寸 橫이 二尺三寸 厚가 一寸四分 重量이五六百匁이나되는 梓木에 文字를 兩面에 美麗하게새인 이경판은 每行十四字 二十三行을 한面으로하얏다 一字의大는 方五六分 板面에는 漆을두껍게바르고 板의兩端에는 抽木을부처 板面의 굽허지거나 깨지는것을 防止하엿다 더구나 抽木에는 片鐵或은 片銅으로 釘裝을 햇기때문에 鞘의 剝脫 離落이 되지안케하엿다 다시보매 [illegible]잇서서 그얼마나 開發한것과 精誠된것을 알수잇다 七百年의 歲月이 흘럿것만 아직도 곰팽이하나 핀것이업는것을보면 그經板이얼마나 價値잇고 또組閣의風通裝置를 잘한것을 알수잇다 이리돌고 저리돌며 나는 다시그것을들고보고노코 敬服햇다 勿論 高麗一代의 全國力을 傾注하야 만든 이經板의 價値를 一言으로 내가斷案을 내리울수업지만 高麗初彫本을 顯宗이 開刊할때도 決코 偶然한 일은아니엇다 웨냐하면 그當時 契丹의兵禍가 連年甚하야 顯宗은南으로 全羅道까지 播遷하게되엿기때문에 顯宗께서는 이것을 佛力에依하야 兵禍를 卻却하려는 생각을갓게되여 八萬大藏經의雕造를 始作한것이다。偶然한일인지는몰으나 十餘年 繼續事業으로 이것을精進하는동안 契丹의兵은 自然히 도라갓다하거니와 이刊行이 國家總動員의 큰일로 되엿든것은 말할것도 업는것이다 이顯宗의 初彫本은 高宗時代에 蒙古兵의 虐焰中에 드듸어 灰燼化되엿거니와 이런慘禍를當한이만큼 都를 江華에옴기고 蒙古兵의暴力을멀리 避해잇든 高宗께서는 一身의 困難보다도 더刻骨痛心의大辱으로 八萬大藏經燒失을 痛어하엿다。

이러케 國百의宗社가 慘虐을 當하고 彊土가占略되여 王業이 不安中에잇섯스나 文化의꼿 大藏經의燒失은 上下臣民의 痛恨을 禁키 어려웟든것이다 더구나 高麗初彫本의 大藏經板의그 彫造된 動機가 慓悍한 契丹兵을 물리치려는데서 始作하엿든것이므로 이獰虐한 蒙古兵을물리치는데는 또한 이藏經을만들자하여 드듸여二十四年 君臣一體로 八萬大藏經刊板에 着手하엿든것이다

이러한 國寶를 盜難되엿다는것이 얼마나 우리게 빼아픈음을 주엇든가? 그리하여 그前날 住持와의 一問一答으로어든 그事件眞相을 더確信하려고 吉行部長과의 一問一答이 다시 시작되엿다

『八萬大藏經板十餘枚가 업서진것은 事實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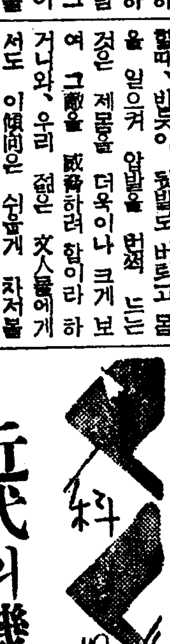
『絕對로 그러치 안습니다』

『그럼 이번 十八枚盜難事件은어찌케된것입니까?』

『그것은 그럴理由가 잇습니다』

하고 그는 내 무름에 泰然한 對答을해준다

(寫眞은 國刊藏版)



近代의機械發達 (3)

李栢圭

이機械라者는 참으로 빠르고 正確하고도 便利한者인만큼 實로 누구나 다ー感歎하는바이나 向者 米國勞働協會에서 調査發表한바에依하면 米國製鋼工業에 잇서서 銑鐵製造에 從來 七十人이아니고서는 到底히 하지못하든일을 이機械의設備로말미아마 至今은 오직 七人으로써 오히려 前보다 더빠르고 더조케할수잇게되엇스며 銑鐵積込에從來 百二十餘人을 要하든것이現今은 오직 二人으로써 能히充分히하게되엇고 煉瓦製造에從來 一人이 八時間에 四百五十個式박게는 더 맨들지못하든것을 至今에이르러서는 一時間에 四萬個式을 製造케되엇스며 機關車車輪一組의製作에 以前에는 二十餘人의職工이 三十乃至四十餘時間을 消費하든것이 至今은此의三分之一도못되는職工으로써八時間에八組를 能히製造케되엇다고發表하엿스니 이아니 機械란者의迅速하고도 便利한點에對하야서는 크게感歎치아니치 못할것이다 그러나一方으로 念慮되는바는 優秀한 사람의製作한機械는 他의 만흔사람에對하야서는 도리혀 有害한武器가되지나 안흘까하는 憂慮와恐怖도 또한 업지안코잇는것이다.

그런中 科學의進步에 依하야 爲先 第一로 놀나지아니치못할만치의發展을 보게된것은 이미 누구나 다ー아는바와가티 저 電氣일것이다 距今 百餘年前『파라듸』氏에依하야 電流發生의考案이생긴以來 急速에急速의發達을 보게되야 西曆一八八〇年、故『에듸손』氏가 처음으로 需用家八十餘軒에 電燈을點火케함으로부터 今日에이르기까지 電氣는 恰似히 우리의家庭의 奴婢와가티 充實하게도 從事하고잇다 이電氣裝置의 製造에對하야 爲先 米國으로만볼지라도 國內 千七百餘의工場이잇고 男女三十餘萬人의 從業員이잇스며 年産 三十餘億圓에 白熱電球 五億數千萬個를製造하고잇다

電話도 亦是 科學의所生兒로써 그出生以來의 發展、또한크게 驚異치아니치못하게 되는가운대 現今 世界第一로 發達普及되어잇는 米國을보면 此電話機의 製作에 從事하는사람은約 五十萬人이라고한다 그런中 이中에서 女子가 二十五萬이라고하니 實로 電話의 發明의德으로 因하야 男女老少區別업시 爲先 米國一國으로 만으로도 如斯히 五十萬人으로하야금 이新職業을 가지게된것이 될것이다.

또한 저電波에 依한 放送無線電話 로만볼지라도 方今 全世界에 千萬圓의 放送費에 數千萬의 聽取者로하야금 더조코더조흔 趣味를 自由로 聽取케하야 게을리하지안코 잇슬뿐아니라 이 受信機의 製作과 그附屬品 部分品等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一大의 主要工業이 되엇슴은 勿論이요 一年間 全世界로하야금 十五億圓 이라는 巨大의 製品을 이世上에 供給하고잇스니 이에 따라서 여기에從事하는 從業員의 數도 不問可知일것이며 아울러 新機械가 新職業을 如斯히 製造하여주는것이라함도 可히엇을수가잇슬것이다.

그뿐아니라 西曆一千八百九十四年四月十四日에『에듸손』氏가 世界처음으로 活動寫眞을 紐育에서 公開할때 겨우五十尺의『필림』을가지고 百人餘의 觀客에게 뵈여주엇든것이 今日에이르러서는 全世界를 通하야 每週八千餘萬人으로하야금 가치享樂케할뿐아니라 現今이世界에서 이活動寫眞工業에 從事하는사람의 數는 大略으로 五十餘萬人이라고한다 그런中 이中에서 十九萬餘人은 製造에 十萬餘人은 分配에 十五萬人餘는 興行에 六萬餘人은 其他가지각색의 技業部에 從事하여잇고 每日六萬餘呎假量의『필림』을 製作하고잇슴으로 모ー든工業이 이에 따라서 同時에多大한 便益을보고잇슴은 勿論이요 여기에要求되는바의 多數의勞働者는 말할것도업거니와 그밧게도 原料材의供給 또는多數의 衣服調製의때문에 또는 印刷物製造의때문에 또는多數의 附屬品供給의때문에 零零으로말미암아 그게되는바의 新職業은果然 그얼마나 큰것인가함을 可히미루어알수가잇슬것이다.

다음 自動車工業에對하야 一考하여보니 이도亦 米國『에오ー스미스自動車會社』에서 向年自動車의 車臺를製造키爲하야 大規模로 自動裝置를採用設備하엿더니 그結果 僅僅二百人의職工으로써 一日(二十四時間)에一萬臺의 自動車를製造케되엇다고한다 萬若 이것을 普通의工場 即自動裝置의 設備가업는工場으로하야곰 이와가튼 製造能率을 發揮케하려한다하면 적어도 二千人의 職工이必要케되는것이다 그럼으로 即 이工場으로말하면 千八百人의일을 正確하게도 自動裝置에依하야 實行케되어잇슴으로말미암아 實로 九割이機械에依하야 節約케되어잇는것이다 이러한 自動車工場의 出現은 果然 工場勞働者에게 對하여서는 一大의威脅이라 아니할수업는바로 機械에反感을가진사람에게는 絶好한一大의材料가될는지는모르겟스나 그러나 同社의支配人의말을 비러보면『우리工場의自動機械가 千八百人의 職을 빼앗는다고하니 이말은 即 一大의謬見이아니면 中傷이라고생각한다 왜그런가하면 우리 自動工場은 直接으로 數百人의職工에게 業을주고잇스며 間接으로는 적어도 數千人에게 職業을주고잇다 即 다시말하면 從來의 工場으로서는 到底히 敢히꿈도꾸지못할만치의 注文이 激增되어잇스므로써 舊工場은 그대로 修繕工場으로使用하고 自動式工場을 新設하야 二百人의職工에게는 直接으로 일을주고 間接으로는 荷造、運搬其他生産等에 附帶되어잇는 諸種事業의激增으로말미아마 數千數萬人의 勞働者에게 業을주고잇는까닭이다 또그뿐아니라 新式機械를 더욱더욱 硏究케하기 爲하야 有識專門家를 爲한 硏究所까지도 新設하고잇스며 決코 이것을 빼지는안는다 또다시말하면 이新方法에依한工場에 새로운職工을 雇入함은 勿論이요、大量生産과勞力의節約에 依하야 從前가트면 敢히夢想치도못하엿든 廉價로 供給을可能케함으로因하야 無慮數千萬人의사람에게 모ー든工事를 할뿐아니라 이것等의 職을주고잇지안는가 새로운機械는 새로운職業을開拓하야써 우리의人類에게 주고잇다』라고 말하엿다.

文明은 天然을支配하며 充分히 動力을利用하야써 人類生活을 豊富하게하야 物資를醜化시켜주고 無智를 除하야 迷信을버리게할뿐아니라 天然力의 奴隷로부터 사람의 精神을 解放하며 最大多數를爲한 社會的、政治的組織을 改正케하는等―如斯의 文明은 實로 精神的이요 또는物質的이라할것이다 (完)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十一)

玄德 作
洪祐伯 畫

그러나 노마는 안심이 안된다 요즘으로 더아찻은 일숙이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도라오는 어머니는 이러케 약음약음 집에서 떠러저가는 시초인지도 모르다. 아버지와도 사이가 더차고 노마에게도 쌀쌀해진 어머니다. 그러다면 집에는 노마하고 아버지만 남게되겟고, 그때엔 노마가 대신벌지 그까짓거 그러나 무섭다. 영이의 그 아니다. 소리를 좃터 분명히 듯고시퍼서 노마는 고무대자루를 들러메고 다리나는 영이를 부러듸로 쪼차간다.

문득 노마는 거름을 멈춘다 어쩐지 그동안 집에 무슨 변고가 낫슬거시픈—사실 다른때가튼면 아버지는 벌서 열번도 노마를 차젓슬것이 아니나 어쩌면 지금도 그랫는지 모른다 그것을 못듯고 장난에 팔려잇섯슨것인지 뉘 아라요.

노마는 살금살금 박문밧게 가 귀를 기우린다. 아무 기척도 업다. 무구녕으로 방안을 살핍니다 아버지는 무릅을 꿀코안저 두손을 한편쪽 귀에다 모라대고 잇다. 손바닥안에는 남생이가 들렷다. 마즌편 벽에는 여나문장의부적이 간즈런이 붓처잇다.

재떨이가 싸인 토담모퉁이 양버들나무는 노마의 아름으로 한아 꼭 찻다. 노마는 두손에 침을 바르고 단단히 나무를을 안는다. 두어자 올라갓다는 주루루 미끄러저나린다. 허리떠를 조르고 다시 붓는다. 또 주루루 머리를 기웃거리며 아래로나무를 살핀다. 상가지에 구름이 걸린듯이 놉다. 헌데 수도집 곰보는단숨에 저꼿까지 올라가니 놀납다. 그리고 기차가 보인다 윤선이 보인다. 큰소리다. 노마가 곰보에게 따르지못하는 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제법 곰보는 어른처럼 그들의 세계를 아이들 말로 해석해들린다 선창에 편한 소문을 알린다. 유행가를 전한다 활동사진 시늉을 낸다 또 어른처럼 돈놀잡쓴다 마음이 내키면 일전에하나짜리 눈깔사탕을 매 아이하나씩 돌리고도 아껴지안어한다 그러나 그돈의 출처를 못는때만은 자랑을 피한다. 다만『저나무도 못올라가는 바보가』하고 얻개를 쓸기죽한다. 그는 헌양복에 캡을 제켜쓰고 어른파 함께 선창에 나가 해물보내다.

노마는 졸름이 나무 올라가기에 열고가 난다. 올라구니를 걸쳐미고 손바닥에 생채기를내고 바지를 찍히고 그래도 노마는 고만두지 안는다. 장난이 아닌거다. 곰보가 가른 노리까지 이르는 그 사이를 가루막은 장벽이 곳 이놈이다.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얏스면 금방 거기는 선창이 잇고 활동사진이 잇고 돈이 잇고 그리고 놓히어른의 세계에 한목 끼수도잇는 딴세상이 잇다. 그때에 노마는 자기 아니라도 축히 아버지 모시고잘 살수잇는 노마임을 여보 란듯이 어머니에게 보혀줄수도 잇스련만 아아!

노마는 두어간 떠러저 다롱바침해난우에 달려붓는당. 서너자 올라간다. 야간기럼쩜 올라간다. 옹이뿌리를 딋고 손바닥에 침칠을하다 찍 미끄러지며 쿵.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짓는것당 저절로 우룸이 터지는 것을 꽉 이를 다물고 아픔이살아지를 기다린다.

뒤에서 호호호 우숨소리가나며 누가목덜미를 잡어 이르킨다 바아지다

『엄마 나무엔 뭐하러 올라가는거여』

그리고

『너 떡 사줄연』

『……』

『너 나 따라오면 떡사주지』

『어딘말야』

『선창마당까지』

떡 아니라도 비가운 소리다 금방 아픈것이 낫는다.

두루마기 아구리에다 손을너허둔친을 지고 바아지는 앞호로 쓰러질듯이 구두를 끈다. 노마가 천천히 거러도 그 거름은 뒤 떠러저 노마를 부른다.

『너 아버지가조호냐 어머니가조호냐』

『다 조치 뭐』

네거리를 건너서 구도방여름지나며 바아지는

『너 마당에 잇는 혈보 알지 그게 누군데』

『……』

『너이집 아래목에 누어잇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냐 혈보가 정말 아버지냐』

『정말 아버진 혈보지러보야』

노마는 조고리소매로 코를문댄다 모자점 뉴리창안의 밝아송이 인형에 눈이쏠려 못드른척하다 혼자 바아지는 흥흥흥후음을 참지못한다.

頭髮에 ビタミンF가 なぜ必要か (비타민 가 웨 필요한가)

비타민F의缺乏은―毛根을弱하게하고脫毛가速히되야薄毛가됩니다

一旦弱해진毛根은如何한養毛料를使用할지라도 도메가벌써느저서、百萬金을넌다고할지라도 美髮을도리키기는不可能합니다 다만平素비타민F의補給만이永遠히美髮을保全하는唯一한良法입니다

비타민F란것 예반드氏마ー휘ー氏等에依하야一九三三年米國스탠포ー드大學에서처음으로發見된것으로서 皮膚細胞의增殖及毛根의强化에가장重要한一種의脂肪性비타민입니다

비타민F의應用은 毛根의生機作用을强케하고、在來의포마ー드에比하야養毛効果가倍加되여서毛根의健全한自然發育을促進하는대잇습니다

비타민F 缺乏性은

皮膚가鱗屑狀으로脫落해서毛根이갈리지든지出血斑과여드름과가튼吹出物이發生하는等特히毛質의發育을阻害하는症狀을呈합니다

皮膚及毛根의發育上

코레스테린、레시틴及비타민F는 1:1:3의比率로要求되는것이 今日의臨床學上立證되고잇습니다 비타민F를레시틴、코레스테린과共히有效且合理的으로配劑되여잇슴은日本政府特許에係한本舖만이獲得한方法이잇습니다

毛髮과皮膚에 호르몬보다나은 비타민F!

最近流行하는호르몬은皮膚에발르면體內에드러가서血管을돌고淋巴液과混合하고그다음에야비로소皮膚로도라오는性質을가지는것으로서 體內를돌고잇는동안그要素의大部分은攝取되는까닭에效果는 當然微弱케됩니다

그런데비타민F는頭皮自體에直接注射的作用을하는것이아니라更히코레스테린·레시틴까지도誘導해서 渾然一體가되야頭部皮膚에숨여들고體內를돌지안코毛根毛幹을培養하는것인故로그整髮効果는정말絶大한것입니다

皮膚의構造를보시옵

藥用 純粹植物

製法專賣特許

メデカポマード (메데카포마ー드)

丹頂チック本舖 金鶴香水株式會社 各데파ー트·藥店·化粧品店에잇습니다 .85 .55 .38 (賣藥部外品)

娛樂

本社學藝部後援의 中央舞臺公演
猛烈한練習·準備는OK 今夜七時府民舘에서

本社學藝部後援의 中央舞臺 第五回大公演은 그뒤萬般의準備가 完了되여서 이제本格的 舞臺練習을 今日午前부터 府民舘에서 하기로되엿다 이公演의 레퍼토리가 高尙한劇이므로 市內 各專校學生들의 團體入場의 申込이 逐至할뿐아니라 一般人氣가 물끓듯이 벌서부터 入場券이 나는듯 前賣되여서 記錄的인 成績이 豫期된다. 더욱 本社讀者의 優待券은 劇場入口에서 使用하도록하며 여기對하야도 特別取扱을 하도록되여 조곰도 不便함이 업도록 萬全을 期하야잇다 讀者優待券은 欄外에 잇스니 만히 利用하기바란다. (사진은 中央舞臺練習光景)

英國映畫界에도 上海映畫製作熱

『支那랄프의石油』『잇혀진地平線』『將軍은새벽에죽다』『大地』等 東洋 特히 支那에 取材한 作品을 繼續提供한 米國映畫界에서는 다시日支事變以來『上海의處女』『上海의北』『上海의西』等 各社가 매우 熱心으로 支那映畫의 製作에 注力하고잇는데 今番 英國파라마운트社에도 파인우드撮影所에서 새로이 日支事變에서 取材한映畫『上海事件』의 製作을 開始하엿다 監督은 죤·하ー디ー·카ー스테아 主演은 파트릭·바ー와 쟈넷트 존스로서 日支事變에際하야 上海의支那人經營호텔에 가치잇는 歐洲人의冒險과 愛情을 그리것인만큼 英國人의立場과 日支事變과의關係를 그린作品인만큼 매우 注目된다고한다

젊은시절
짜ー네트·맥드날드 二十一日부터 明治座에서上映

이映畫는 로버ー트·레오나ー드의 監督한 메트로의映畫이며 主演은 짜ー네트·맥드날드이다 그리고 往年의美男俳優 죤·바리모어가 助演하게되엿스니 이야기는 엇던시골靑春男女의戀愛가 호화로운歌手가되여보겟다는女子의 꿈으로 팜미 아마 靑年은 大歌劇하게되엿다 老婦의 回想歌속에서 人生의虛無와 人氣者의末路를보고 다시 都會를그리워하고 人氣歌手가되여보겟다고 날뛰던처녀의虛榮은 깨트러지고만다. 로맨틱한 映畫인데 一月二十一日부터 市內明治座에서 上映하게되엿다.

虎之道 (三)
新春懸賞選外實話
朴勝烈 作 美湖 畵

대체 어떠케 할라는심산 인가하고 바라보앗드니 조곰도움죽이지안코 나를보고 잇겟지요 몬저겁을먹은관이라 나도 대들지를못하고 잇섯으나 호랑이는 불을겁내한다는 말이생각나서 담배불을피여물엇습니다. 그러나호랑이는 도망갈생각도 아니합디다. 그때호랑이를보니 과연산중왕이기는산중왕인것갓습디다. 깍닥하지안코섯는양이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람이상으로 점잔터군요 그러나 나는 빨리 좀가주엇스면하고 속으로될수박게업서 지게를나려노코 땅에누엇지요. 여기서 겁먹은것을 알리면안되는것을 알엇기때문에 누어서도 눈을 한시때지안햇스나 나도 대범하게 누어잇섯지요. 그랫드니 웬일인지 아무소리업시 어데로 다라나버립디다. 그다음날 생각해보니 무섭기도 하나 그호랑이가 괫심도해보엿습니다. 나를시험해보느라고 그런작란을 한것도가트며 다시는 죽령에 못오게할라고한것도갓습디다. 허나 산에서버러먹는놈이 안갈수야잇는가요. 될수잇는대로 일직나려오겟다는 생각을가지고 매일 또올라갓지요. 그게 음력 십일월 초엿습니다. 아직날자도 외지만 십일월 초엿샛날이엿습니다. 날도좀 일르고 중턱이산으로오르면 나무도 날래할것가터 작고 올라갓습니다. 참으로 노픈곳에는 썩은나무도만코 사람의손도 잘가지안허 나무하기를 손쉽게할수잇더군요. 한지게를하여 질머노앗스나 전보다도 날은 일넛습니다. 솔솔솔 지게를지고 나려오려니 큰바위에서 고양이색기가튼 적은놈들이 댓마리 옹겨작난하겟지요. 요것을봐라하고 나는 지게를 우에노코 그것가히로갓습니다. 언제나 눈을떳는지 털이반질반질하고 노란눈이 반짝이는게 사람

납디다. 그놈들을붓잡어다 팔엇스면 겨우내 지게를질머지지안어도 괜치안흘것가태 그호랑이색기 다섯마리를 모두잡지안엇겟서요. 그놈들도 그리 소리를지르지안코 잡는대로잡히드군요. 또 나를혼내준 그놈의 호랑이란놈을 골려주고시픈생각도나고해서 지게를진채 다섯마리색기를 품에안고 산으로나려왓습니다. 색기를나코 사람흉경하는호랑이의 심사를모르고서ー그놈들이 귀엽기도햇으나 고놈을가저다가팔면 적어도 한마리에 오원씩은바드려니하는생각에 그놈을 살살쓰다드머 산비탈길을 걸엇습니다. 무서운호랑이색기는 엇지도 귀엽고 탐스러운지 품속에너코 살기운을 쏘히여도 나를 해하려하지안엇습니다 자라서 큰호랑이가되면 무슨조흠할진지도 모르나 어린색기는 강아지만큼도 작난을치지안엇으며 사람만큼이나 점잔엇습니다. 아마 자기네들끼리는 대체 어데로가는것인가하고 눈짓을하는지모르나 손에든놈은 도망칠냐고하거나 무서워 고함을치거나하든 그런 기색을 도모지 보히지안햇습니다. 호랑이색기를 가저오면서도 미덥지하고 슬어만주고시픈까닭이 무엇인지모르지요. 좌우간 토끼가튼놈이라면 색기를나코 죽어갈때가되엿서도 사람에게 생으로잡힌다면 그유리알가튼눈을 잠시도 가만두지 못할것입니다. 떳다감엇다하며 살구녕만차즐리고 애쓰겟지요. 그러나 호랑이색기는 눈을번쩍번쩍 할뿐 참으로군자가튼군요. 산길을 거이나려와쓸땝니다.

내귀가밝어 그랫는지 뒤에서솔을 두둘기는듯하는소리가 이상하게들리며 점점갓가히오는것갓갯지요. 겨울이라 떠러진나무닙파 마른풀이 사람의발자국소리를 그대로내는 산속이여서 그러지갓갑지안으면 산중생이다 라나도 알어듯을수잇는것입니다. 나는 고개를돌리고 무심히뒤를바라보앗드니 웬걸 에미호랑이가 죽어라하고 다라오지안습니까! 멋모르는 그엇짐에도 얼마나 살기가돌앗을음 엿볼수잇섯지요. 웃어도 무서운얼굴인데 털꽃까지 성을내고 불봉을 가림업시 다라오는 그호랑이에 나는 겁이드럭습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죄를지기도 햇스려니와 이에 도망할조도 어물거릴수가업시 도망을치는수밧게업섯지요. 색기호랑이를 전부내던지고 지게도 벗어던진뒤 나도 힘을다해서 다라낫습니다. 한참 뛰다가 색기를 돌려주엇스니 더따라오지안켓지하고 고개만 돌리여 보앗드니 색기잇는곳은 거들떠보지도안코 쏜살가티 다라온두려. 어떠케합니까! 꼼작못하고죽는줄만 알엇습니다. 동리나갓갑다면 고함이라도 처렷만 집잇는곳에는 아직 멀엇지요. 호랑이는 점점갓가히오고만 잇는데 참으로 아득합니다.

二十日 (木曜)

◇午後六時兒童劇『山村아이들』 白羊會 作과指導 洪銀杓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神父 盧基南
◇同七時四〇分 講演『抗日支那의動向』 朝鮮日報 韓晳容
◇同八時一〇分 京畿歌謠 一、關山戎馬 二、진아리 三、압山打鈴 四、뒤山打鈴 五、방아打鈴 張桂仙 金秋月
◇同八時三五分(東)和洋合奏 一、唄『末廣가리』 近藤信一編曲 二、描寫曲『여우의시집』 倉田榮喜作曲 三、寫意曲『是重名鑑』 齊藤一郎作曲 富士宮絃樂團 指揮 近藤信一
◇同九時 라듸오小說『사랑손님과어머니』 朱耀燮作 朗讀 沈影 效果 李載玄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俗曲
◇同六時 (東)이야기와노래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唱歌
◇同七時四〇分 (未定)
◇同八時 (大)義太夫
◇同八時三五分 (東)和洋合奏
◇同九時 (東)講談

二十一日 (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크레ー드·웨스타ー
◇午後〇時五分 京畿立唱 一、놀냥 二、압산打鈴 三、뒤산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도라지打鈴 六、자진방아타령
卓福萬 蘇完俊 李命山 李命吉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珍籍奇書이야기』 盧子泳
◇同六時 라듸오學校『地圖는어떠케그리는가』 宋基柱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三) 咸淵默
◇同七時四〇分 獨唱 一、솔베이지의노래 그리ー그作曲 二、牧童아 웨덜리作曲 三、자장歌 크라이슬러作曲 四、아베마리아 쿠치作曲 五、歌劇『삼손과데릴라』中에서 상상스作
◇同八時 古談『讀者爲罪』 朴慶姬 庚秋岡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上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上弦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經濟解說『今後의米價動向』 東亞日報 金弘鎭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物語
◇同六時 詩吟(京城)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八時 (東)落語
◇同八時一〇分 (東)落語
◇同八時四〇分 (大)歌謠曲
◇同九時 (東)時事解說

二十二日 (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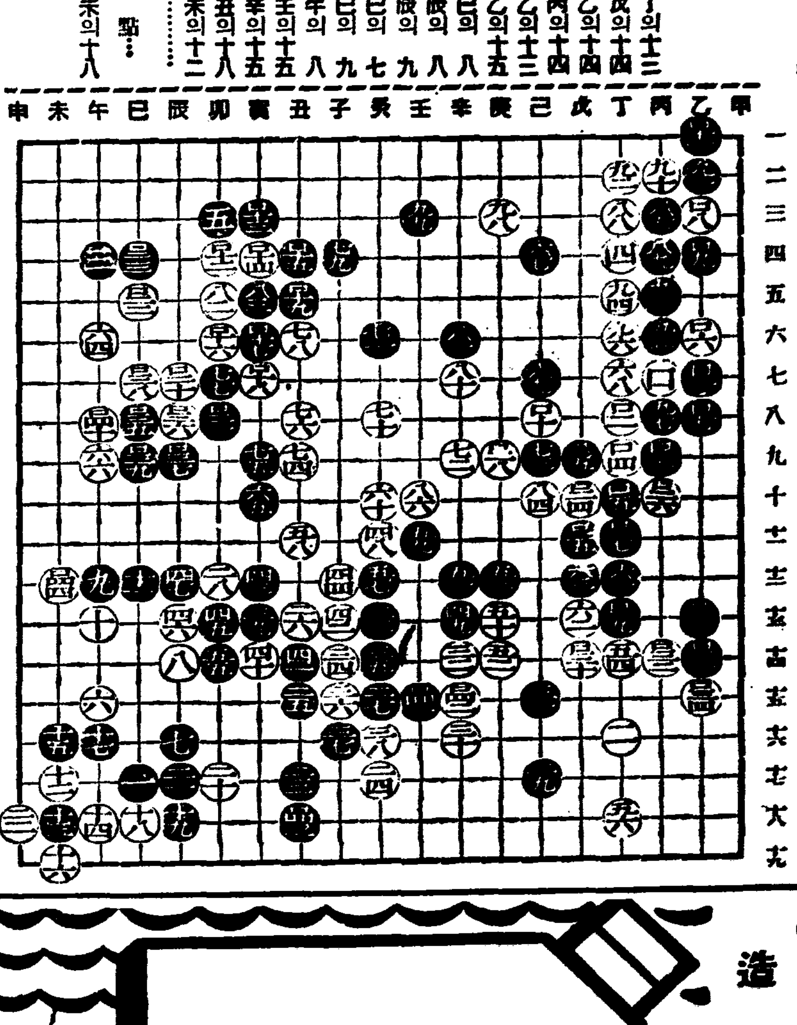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東) 土曜콘서트(第十回) 一、絃樂四重奏曲 作品一七 그리페作曲 第一樂章 極히活潑하게 第二樂章 徐徐히 第三樂章 間奏曲ー너무遲滯업시 第四樂章 急速히 第五樂章 極히活潑하게 二、라르겟트B플랫트長調 복케리ー니作曲 松本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松本善三 第二빠이올린 桑澤麗子 빠오라 坂橋順 첼로 大村卯七 (獨奏)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衞生講演『冬期保健上注意할멧가지』 城大 崔羲楹
◇同六時 合唱과獨唱 京城少女合唱團 一、合唱시내 二、『봄맞이』 三、獨唱자장가 四、合唱故鄕의廢家 五、獨唱旅愁 六、獨唱부헝이 七、合唱水仙花 八、獨唱바다 指揮 尹正子 伴奏 申昊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三) 崔昶元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黃河의今昔』 徽高 金道泰
◇同八時一〇分 一、새打鈴 二、六字박이 三、興打鈴
◇同八時三〇分 (平) 라듸오드라마『눈보라』(三景) 馬逸號作 吳蒙守 金鑛 一配役一 一民…李義昌 東秀…馬梓英 長孫…康一秀 玉女…田三安 그의父…崔容植 그의母…金永愛 演出 馬完英 平壤美蓉會
◇同九時 (大) 피아노獨奏 一、소나타作品五十七 베ー토벤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안단테·콘·모토 第三樂章…알레그로·마·논·트롭포 二、로만스作品十二 番 마리칸느作曲 吉田 敏子

計戶의局面에서 先着은黑이掌握
白未의十二가精得하니 黑의應戰은엇더한가

黑一二八 丁의十二은 벌써 計數의 地境에 드러선局面이라 자못緊然한일인데 白一三〇 戊의十四에서부터 白一三四 乙의十五까지는 彼此에着着한手順이라 別로다른 意見을 開陳할餘地가업는데 아직도先着의 制先權이 黑에게잇는것은 黑의여간 興味가아니다 그래서黑은 또 一三五를 巳의八로 드러가니 白은一三六을 辰의八로나가매 黑은 一三七을 辰의九로막으니 白은 다시 一三八을 巳의七로가 白의 侵入을바으니 黑은 一三九를 巳의九로 나가고 白은 一四〇을 午의八로 노하 彼此에 一戰이 交合될듯 될듯하다가도 端緒整然하게 풀녀나가는것은 觀戰者의 또한 妙趣를 느끼는바로서 서로 감고부비는中에서도 自然히 풀리는것은 黑白의 力量이 彼此에 伯仲한 때문이라고 아니할수업는일이다. 그다음 黑은 西南邊의 局勢가 어느程度까지 整理되다서 一轉北進하야 一四一을 壬의十五로 先着하니 白은 一四二를 辛의十五로 막으니 黑은 一四三을 丑의十八로 노핫다. 이丑의十八로 말하면 一見에 넘우疎放한듯이도보이나 실상은 그러것이 아니라 만약 緊着을 取하느라고 子의十七이나 十八에 노흐면 先着은 先着대로 빼앗기면서 白의 城壘만 堅固히하게되는것임으로 丑의十八로 노코보니 비록 先着을빼앗기드래도 다음에 白의 陣地로 깁히 드러갈수가잇는 後方根據가되는때문이다、그러니 白은一四四를 未의十二로 노핫는데 이것은所謂 一得一變한着手이다。가령 黑이未의十四로바드면 未의十三으로이어서 黑의 未의十一로 막드래도 다시白은 未의十으로 越點을 노하 南角의 死軍을 連絡해올수가잇고 가령 黑이 未의十一로덥흐면 白은 未의十四로 버려노흘테니 그러면 黑은不得已 後方斷絕의 憂慮가잇슴으로 不得已 午의十으로 노치아니치못할것이라 그러면 白은 申의十六으로 노하 成功은 無難하다. 이러한 以一當二의 戰法에對해서 黑은果然 엇더케 應戰할것인가? (赤松子觀戰記)

●一二九 丁의十三
○一三〇 戊의十四
●一三一 乙의十四
○一三二 丙의十四
●一三三 乙의十三
○一三四 乙의十五
●一三五 巳의八
○一三六 辰의八
●一三七 辰의九
○一三八 巳의七
●一三九 巳의九
○一四〇 午의八
●一四一 壬의十五
○一四二 辛의十五
●一四三 丑의十八
○一四四 未의十二
…死點…
●一四五 未의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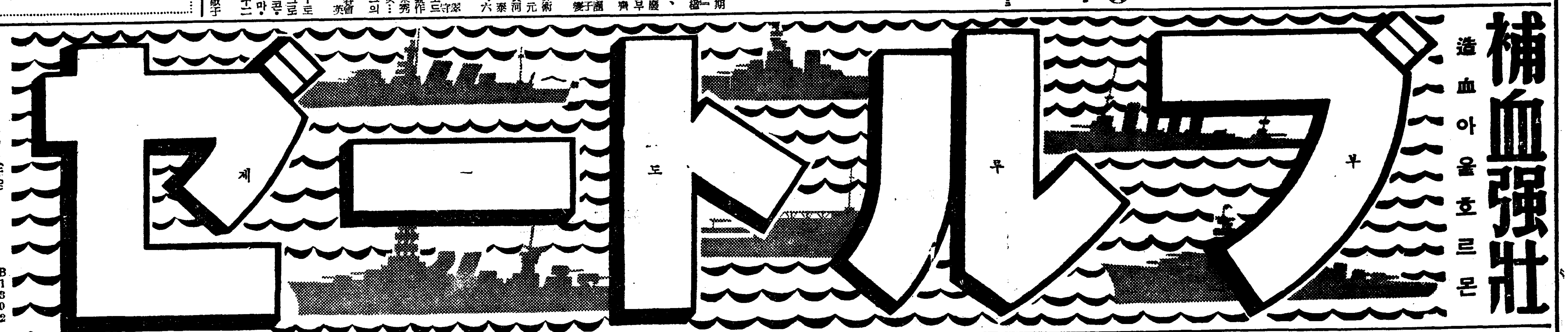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9)
白 盧史楚
黑 丁壹春



中央舞臺第五回公演
青鳥 (메텔링크作)

時日 一月廿一日、廿二日、廿三日午後七時
場所 太平通府民館大講堂
入場料 五十錢均一 (但本報讀者에限하야三十錢으로)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中央舞臺公演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舘大講堂
時日 自一月二十一日至二十三日 午後七時
一人一枚限



各帝國大學 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グアヤブルトーゼ
コーアル
ネオブルトーゼ錠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B1302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粒子에훌륭한新研究!
(1) 본살에빗나는듯어여뻐게발라지고
(2) 近代的인明朗한色味!
(3) 時間이지날수록一層더어여뻐짐
이複合粒子의 훌륭한化粧力을 꼭한번試驗해주십시요!

複合粒子로미끈하고곱게발라지는水白粉
明色美顔水
白色 肌色 濃肌色

明色白粉
明色固煉白粉
複合粒子로미끈하고곱게발라지는白粉!
白色 肌色 濃肌 淡紅

中部版

永登浦擊劍大會 參加者六千餘名

【永登浦】영등포공설시장이전개업기념제사대회(永登浦公設市場開業記念祭大會)는영등포공설시장관매인조합주최와 경성부영등포출장소(京城府永登浦出張所)후원하에 지난십오일부터 사흘간 신흥공설시장구내광장에서 개최되엿는바 참가자가 무려 육천여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이루엇는데 입상자(入賞者)는 안성일(安聖日)군외를 위시하야 다음과갓다

一等安聖日 二等林成石 三等李大秉 四等韓石昌 五等張龍福 文 六等崔榮淳 七等宋萬實

十一個年計畫으로 緬羊四萬頭를飼育
初年度에오는六月에種羊二百頭를購入
京畿道에서積極的으로奬勵

전시체제아래의 무역대책으로 외면(外綿)과 양모(羊毛)수입을 극도로제한한 오늘날에잇서서남면북양(南綿北羊)의 산업정책은 소용이나 양모가모두 일반생활에는물론 군수품으로도 필수품이되여잇는것이다 경기도에서는이 중대한국책에 순응하야 도내에 대대적으로 면양사육(緬羊飼育)을장려할것을계획하고 작년도에 시험적으로 호주(濠洲)로 부터 일백오십두를 수입하엿든바 그 성적이 예상밧게조왓스므로 십삼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사육장려계획을세웟다 그계획안에의하면 십삼년부터 십일개년계획으로 사만두를 도내에서 사육시킬것으로 종양(種羊)으로는호주산과 동척(東拓)에서 사양하고잇는것을 사드릴예정이며 그 수량은 처음사년간은 매년오백두식 다음칠년간은 매년일천두식의 종양을구입하야 이것을번식시켜 십일개년동안에 예정두수에달하게 할예정으로 도농회로부터 각군농회에 기술원을파견하야 사육방법、치료방법、입식서의 처치방법등을 상세히지도하기로되엿는데 초년도인 신년에는 유월에 위선약이백두를 구입장려할 예정인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양에대하야서는 그 대금의일할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그털은 각군농회에서 일선하야 공업용으로 파는것을 원측으로하고 일부를 현재도내에잇는 네명의『홈·스판』제조자에게팔거나 또는가정에서 직조하도록 하게되리라고한다

建築促進件 工場誘致促進件 通信機關整備促進件 金融組合貸出限度引上實施促進件 鐵原線敷設件 黃海線起點延長件 產

軍需工業助成코자 產業調查會開催
오는廿二日午後一時부터 京城府會議室에서

오는이십이일 오후한시부터경성부회의실에서 경성부산업조사회(產業調査會)를 개최하게되엿다 지난십이월십일의 조사회에서 결정한 군수공업에관한조성책(助成策)에대하야 심의할예정인데 이문제는 시국에비취여 국방적견지로부터 보든지 또는 군수공업의 지방분산화(分散化)의 견지로 보든지 매우 중요한 문제임으로 상당히 론의될것으로 보인다 이조사회의 결의사항중 시설의 필요가잇다고 인정되는것은 신년도예산에 계상될것으로 군수공업발전조성에 크기여가잇슬터이다

開豊郡選出道議員 趙晟濟氏資格喪失

경기도개풍군(開豐郡)선출도회의원 조성제(趙晟濟)씨는 선거규측위반으로 지난십이일부로 자격을상실하엿다 그런데 차점자 동군대성면대성리(大聖面大聖里)사는 신정균(申貞均)씨가 당선되여 십팔일부로경기도고시로발표한바잇섯다

開城商工會議所의 會館新築을決議
新年度事業案도決定

【開城】지난십팔일 오후한시개성상공회의소(開城商工會議所)에서는 금년도 예산총회를 동회의실에서 회두 박봉진(朴鳳鎭)씨 사회하에 개막되엿는데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만일천이백이십원으로 작년보다삼백원의 감소를 보게되엿다 상도개성의 금후 번영책을 위하야는 전기예산액은 실로부족하다는 질문이 개회벽두에 손홍준(孫洪駿)의원으로부터 전개되자별도자금을 변출해서라도 금년내엔 동회의소만은 건축하자는론제가 제일중점이 되여가지고림한선(林漢璿)공진태(孔鎭泰)의원등이 강경히 이정을 주장력설한바잇서 작년 개성전기회사가 서전(西電)에 매수될때 사회시설기념비로잡은만원을 제공하겟다는것을 직접우리손에 바다가진후 남어지부족금은 기부헌식등으로하든지해서라도 완전한 건축비를 비저내서 금년엔 기어히 실현성을 보게하도록 하자는의견이 일치되여 드되여 동회사무소설치기성회를 따로히 조직고 확려달성에 매진키로 되엿다한다

그런데 금년도사업계획은 다음과갓다한다

商店街實務調査 店員實務講習會 店員修養講演會 開城貿易調査 商工業發展向上施設 重要物價의騰小調査 開城商工出入調査 府內生活火災保險調査 珠算競技會及競技大會開催 開城商人地方分布狀態調査所報(開城商工)發行 產業展覽會視察 商業經營指導 事務所

伊川에서試驗으로 阿片과煙草栽培
두가지모두成績良好

【伊川】강원도이천군은 토지가 비옥하야 각종농작물재배에 적당하다 아직까지 이러타할 특용작물(特用作物)의 재배가만치 못하야 일반농가의 다각농법(多角農法)으로 잇섯는바 경제가그리 넉넉치못하든바 산내(山內)판교(板橋)낙양(樂陽)에 삼년전부터 연초(煙草)를 재배하게되야 되여오든바 금번다시금 안협면(安峽面)일원에 연초경작을 금춘부터 실시하게되야 일반주민에게 적지안흔 기대를주엇스며 작년에 방장면(方丈面)에서 아편(阿片)을 시험으로 경작하야 그성적이 매우 우량하엿슴으로 금춘에는 이천군내에서 방장면 판교(板橋) 학봉(鶴峰) 서(西)면에 대대적으로 아편을재배하야 파연사업이천에 신흥명랑한 소식을전하고잇다한다

旅館專門窃盜犯 檢事局에送致

【晋州】년말의분망한 틈을타서 철업 진주읍대정정(大正町)지봉려관(新興旅館)에 투숙하여 투숙인의 금품의팔십원어치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가톳수단으로각려관을 절도해강을 하여 피해액이 수백원에 달하엿든바 진주서원에게 체포되어 십구일일건서류와하께진주검사분국(檢事分局)에 송치되엿다

全南海苔豊作
出廻五十七萬束

【光州】해태(海苔)사용기에기후가오회하면 해태양식장에서 해태가부패함을 면치못하는데 금년의호한으로인하야 전남해태는 대풍작을 예상하고잇다는바 일월십사일까지 출회된해태수량은 오십칠만속(束)으로 그가격은삼십만여원에달하고잇다 더욱해태출산기는 금월로부터인데 현재 출회된 각지해태조합별과 산출액은 다음과갓다

(一月十四日現在調査)

組合名	數量	金額
▲光陽	[illegible]	[illegible]
▲麗水突山	[illegible]	[illegible]
▲同 玉井	[illegible]	[illegible]
▲同 華月	[illegible]	[illegible]
▲高興	[illegible]	[illegible]
▲長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莞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島	[illegible]	[illegible]
▲珍島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平康에積雪尺餘
自動車運轉도不能

【平康】평강지방은 근년에드문 한파(寒波)로 한동안 주위가계속하야 령하삼십여도에 달하엿다가 요즘은 풀리가다 따뜻하여 지난주위에 어디부터인지 풀니여 장바닥은 어해화(泥海化)하야 맛치류질을 장리를연상케하드니 지난십칠일 새벽부터는 눈이내리기 시작하야 엄청나게도 평지가평안에 한자가량이나 되든눈이 차이여서 평강일대는 온세계를 이루웟스며평강(平康)이천(伊川)간 정기자동차(定期自動車)까지 두시간여착(延着)이되엿다한다

"디푸테리아"猖獗
市內에每日、五六名患者發生
道外府에서無料注射

요사이『디푸테리아』의 유행은 기를 당하야 기후불순인 관계인지 지난십일이후 매일부내에 오륙명의『디푸테리아』환자가발생하고잇는데 작년일년중에 발생된 어린환자 총수는 오백이십구명으로 전년의 삼백칠십팔명에 비교하야 백오십일명이증가하야잇서 그중에는 사망자도 다수에달하엿다 이에대하야 경성부적야(鉄野)의생과장은 특히어른들이 증세는나타나지안터도 병균을가지고잇서 어린이에게 매개하는경우가 만흠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외출하고 집에 들아온때에는 양추질할 필요가 잇스며 경기도 위생시험실과 경찰부·의생시험실 에서 무료로 예방주사를놋아주고 잇스니 주사를 아직안마즌사람은 빨리 예방주사를 마지러오기를 바란다고일반의주의를 이르키고잇다

京城府永登浦出張所管內 普校願書提出期
二月廿一日부터接受

【永登浦】경성부영등포출장소(京城府永登浦出張所)관내소학교와공립보통학교제일학년 입학원서접수기일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는데 그기일이전에라도 판명하면 제출하야두면 좀대가 수합하여가지고 수속을하기로되엿다고한다

二月二十一日 鍾路町 黑石町
二月二十二日 本洞町
二月二十三日 鷺梁津町 上道町
二月二十四日 新吉町 番大方町
二月二十五日 永登浦町 道林町
二月二十六日 堂山町 楊平町 楊花町

府廳에電話輻輳 交換臺의回線을增加
京城府代表電話三臺를增設

부세의 진전에따라 경성부청의 전화가폭주되여 현재의 구내사설전화장비로서는 충분치못함으로 이번이를개선하야 현재의 교환대수용회수선 십오회선(回線)을 삼십회선으로 증가하야 오는삼십일부터 이를개통하는동시에 부청대표번호를 현재의 본국(本局)삼천일백오십일번에 다음의번호를증가하엿다

▲本局 三、一九一 ▲本局 七、一四一 ▲本局 七、一六一

伊川邑下水溝 急速施設을要望
六千住民의死活問題

【伊川】강원도이천군읍내(伊川邑內)는현재 호수일천여호인구륙천여명이 살고잇스며 시내전회전등가설시구개정등으로 강원도내에서 느들게보는 유수한도시로 날마다 각지로 자동차화물차 우차등이 련락부절하고복중앙선의 실지측량과 수력전기발전등으로 자못비약적 발전을 하고잇는 이천읍내에 하수구의 시설이 업서녀름장마때면 배여호의 침수로읍내주민의 불안을 자어내고잇고 읍내시가지풍치상으로나 륙천여읍민의 위생상으로보와 이천읍내 하수구는 절대필요를 늦기고잇서 이미읍내주민들은 다년간연안중에 요로당국에 루루히 촉진에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한바 잇스나 상금하수구 시설에대한 계획이업슴으로 장차오는 녀름에다시금 침수의 소동을 련상하고 읍내주민들은 기어히 금년에는 하수구의실시를갈망하고잇다한다

獻金美談兩題 開城府民의熱誠

【開城】개성부가내 공업동공작업장(開城府家內工業共同作業場) 여직공 삼십팔명은 하루동안과 땀흘린노동임금 삼십삼원이십팔전을 국방금으로 헌금한 미담이잇스며 또 부청경신작흥조합(警神作興組合)의원일동은 집무시간중금연대로 모아온 저금륙십구원사십사전을 국방금으로 헌납하얏다한다

겨우十五日동안에 叺五十萬枚生產
그價格總額은五萬五十圓
開豊郡의督勵奏效

【開城】개풍군수 이윤세(李允世)씨는 일즉이 군청고원을 총동원시켜 농한기한철의 편내농민에게 부업장려의 정신을 고취시키게하는한편지난 일월부터 오는십오일까지『가마니』를짜는데 려하도록 적극적으로 양선독려하얏든바 약십오일동안에 벌써 오십만매의 비료가마니를짜내서 그가격으로 오만오십원의 거액이 각농가에 산포되엿다는 희소식을전케되엿다하며 금후기한까지는 적어도 백오십만매의 실적을보가할 예상이라하니 여기대한 승리의이 놀러지봐란 이십만원이나 된다는바 이것을군내만여호중 일호당 평균오배하면 이십원식이나된다고하다 부업으로 이가마니농산적을 보히온 라지방에서 불우한는 개풍군민의 미풍으로 그명성을 떨치게되여 오는이십이일 장단군(長湍郡)내 십여면 농업기수들은 실지견학을 오게까지되엿다한다

京畿道河川改修工事 時局關係로遲延
八百萬圓工費의五個年繼續事業
工費를削減、工程도遷延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약허가는 하상(河床)관계로 우기만되면 범람하야 논밧농일조에 이해화(泥海化)하는 중소하천십오개의 개수계획을 총공비팔백만원의 오개년계속사업으로 세우고 소화십이년도부터 착공하엿섯는데 제일년도공정(工程)을보면 토목과가직영하는 덕보천(德寶川)과 흑천(黑川)만은 금년삼월말까지에 완성예정이나 가리착수한 수원천(水原川) 곡릉천(曲陵川) 경안천(慶安川)(以上土木課直營) 청계천(淸溪川) 홍제원천(弘濟院川)중랑천(中浪川)(以上內務局京城治水事務所擔當)등은 당초계획인 제일년도예산 백구만원이 공사도중에 일지사변이생긴관계로 예산의삭감을통하얏슴으로 예정공정보다만흔지연을보게되엿스며 제이년도인 금년도예산도 당초의 일백삼십만원에서 다소감소될것임으로 전체공정은 계획년수보다 오래걸릴것이나 정확한 날자는 시국의장래와 관련되는것임으로 예측할수업스며 아즉착공조차하지못하고잇는 남어지 일곱하천(烏山川、黃口池川、玉宿川、淸溪川、汶山川、砂川、福河川) 중한개호는 두개는 금년도에새로착공을보게되리라고한다

石炭속에숨어 神戶까지密航

【仁川】일본내지에 가고시퍼기선석탄저 장실에 숨어서 신호(神戶)까지 가서 고만선원에게발각되여 도로 소환되는자가잇다 부내 도산정(桃山町)사는 최게동(崔桂東)은 부두에서 하로 노동하든근근히생활을 하다가 밀항(密航)이나하겟다는 결심으로 지난십사일밤인천항을 출범 신호(神戶)에 향하는 모기선의 석탄저장실에 숨어서 밀항을하다가 신호입항직전선원에게 발견되여 십팔일인천서에 송환취조를 밧고잇다는바 작금에는 밀항자가 절대로 업스리라고 생각한든인천서에서

鑛山地帶楊平驪州에 金山道路新設計畫
廿四萬圓의工費로今年부터三個年繼續事業
京畿道新年度豫算에計上

산금국책(産金國策)에의한 금산도로(金山道路)가 경기도로 도 데뷔—하게되엿다 경기도로목과에서는 산금장려에는 광석을 운반할도로를 완비시키는것이 급선무라는 총독부의 금산도로정비책에 순응하야 금산도로부설을 계획하고 도내각광산소재지의 도로를 조사중이든바 우수한광구가 가장만히잇는 양평(楊平)과 려주(驪州)사이에부설하기로 결정하고 신년도예산에신규사업의하나로 계상하엿는데 총연장 약칠십리에 소요경비 이십사만원의 삼개년계속사업으로할분은 국고보조 남어지대부분은 광산업자가 부담하기로되엿스며 초년도인 신년도 지출액은 사만원으로 예산이통과되는대로 곳 착공하기로 되엿다

는 다시 엄중경계를 하리라한다

開城府財源調査
廿名委員을囑託하야
財政難의打開策으로

【開城】약진하는 개성부세와함께 세출액은 년년 팽창해가는 현상에잇는데 세입액의 증가는 여기에 따르지못하는때문에 재정상 곤난한 형편에잇는 부당국은 현하의 금년부는 재원조사의 연구방법을 강구하고잇다생각하고 부회의원급 학식경험잇는이로 이십명을 선정하야 개성부재원조사위원(開城府財源調査委員)으로 촉탁하야 각방면으로 철저히 조사를 실행키로하얏다한다

이제는船腹沙汰
積載할貨物업서困難
고루지못한仁川埠頭

【仁川】한동안은선박부족으로화물이 산적하얏든 인천부두에는 요사이는 화물의 대룡수를보게되엿다 작년말까지도 선박이 업서 각국무역자들은 수미를펴지못하다던것은 류보한바이어니와 지난십칠일에는 화물선구척이 인천에입항하야 축항의만원을보엿다는바 근일에와서는 도리어화물이업서서 선회사에서는 당업자들에게 화물운송을 독촉한다하며 새해에드러서는 작년과극반대로 선복의 소화력이 적어도라가이나 되지안흘가 하는염려가 잇다는데 일반무역상들은 필수잇는 한도까지는 화물선을 이용하야 작년과가튼 곤난을겪지아하도록 하여야하겟다고한다

流氷禍로杜絶된 西海岸航路回復

【仁川】그동안 류빙으로인하야 서해안항로는 교통이두절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그간삼신운수(森信運輸)주식회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가추아 이십일일부터 인천—연안(延安)선과인천—서도(西島)선의 운항을개시한다는데 그간두절되엿든서해안의 교통이다시회복되얏다고한다

正租사주겟다고 大金詐欺코 遠走中에被捉

【光州】전남장성군삼서면 부성리(長城郡森西面富城里)사는 최병외수삼인에게서 정조를 사주겟다고 령광군대마면원흥리(靈光郡大馬面元興里)김기우(金起祐)는현금 일천사백오십원을 가지고 어데론지 종적을 감추엇는데 경찰에서는 각지에 수사한결과 고창군 성내면 칠성리(高敞郡星內面七星里)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체포하엿다한다

全南四個所의 橋梁架設着工

【光州】전남도에서는 소화십이년도부터 오개년 계속사업으로 칠백삼십사만원의 경비를 드려 중소하천공사를 진행하고잇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그에따라 도내교량등수해에 파괴된것을 복구에 주력하고잇는바 또다시 도내교량사개소에 팔만삼천여원으로가설공사에 착수하게 되엿다는데 그공사처소와 공사비는 다음과 갓다

▲全羅南北道를通하는潭陽—淳昌間 錦月橋 長一三三米 工費三萬圓
▲同處所 石峴橋 長一〇八米 工費二四、〇〇〇圓
▲潭陽郡月山面 三茶橋 長六〇米 工費一八、〇〇〇圓
▲光山郡芝山面 鳳龍橋 長二三米 工費一三、〇〇〇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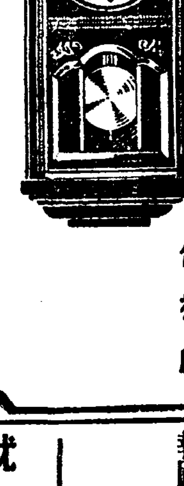
性器強大藥 ... 淸導補胃丸 百靈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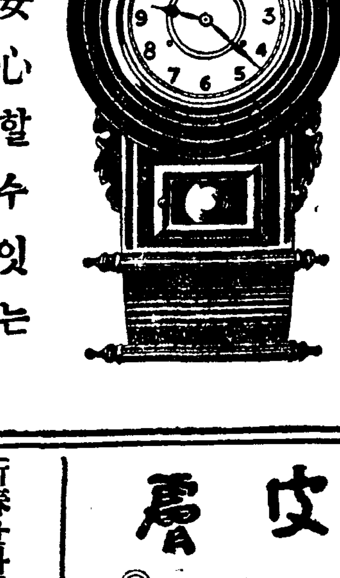
絹布·綿布 現金都賣 東順德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一四九四番 電話光化門 二二〇七番 三八六番

命御用達の速達 速達社 スターメッセンヂァ 電光3444 京城安國町

朝報案內 事務所長急募 新年度業務擴張之爲メ中鮮北鮮各地ニ事務所長ヲ急募ス ... 京城府 黃金町

Meiji 明治の掛時計 安心할수잇는 示時正確 價格廉





조흔職業 前途益々有望 『割箸製造機』 ... 東京市 日本割箸工業所

特賣期間延期 特選朝鮮全圖再版發行 社告 ... 特賣配給延期期日 昭和十三年二月十五日까지 特賣價格 朝鮮全圖一枚金五十錢 ... 모던百科日記無代進呈 ... 라디오放送 ... 韓洋出版社

明治座 21日ヨリ 君若き頃 口笛吹いて跳ね廻る お孃さん ... 主演 田中絹代 ... MAY TIME MGM社超特作映畫 音樂のカヴアルケードと絕讚の!! 監督 ロバート・Z・レオナード 主演 ジャネット・マクドナルド ネルソン・エディ ジョン・バリモア

皮膚 チャーシ ◎顏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종 ...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번만쓰면 영낙업서完治됩니다

謹告 ... 東寶映畫株式會社 聖峰映畫園

就職近道 第三回 大滿測量學院 生徒募集 本學院卒業生就職率九十%

凍傷에 アスター

李殷相著 漢拏山 定價一、二〇 送料十九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學校의成績 ノーシン●

四個年計畫에順應 生產力擴充强化
各局課에命하야新擴充案樹立
特히農產物을大增產

戰時體制下의 產業界는 努力程에잇서 새로計畫을 세울程度 作였는 生產力의 擴充이란것이 에잇는것이라고는 그러르거이업 本來부터 必要하거니와 今次長 다해도 中央方針에依하야 다시 期戰에對應할것을 前提로 內閣 금 計畫의 再强化의必要를느끼 企畫院에서 國力擴充 四個年計 고 各局課에命하야 必要한것에 畫案이 作成되고잇슴에따라 總 새로擴充案을 세우게하고 잇는 督府에서도 이에萬遺憾이업기를 中인데特히農林局으로서는 米穀 期하야 生產力擴充의 再檢討를 操作 畜產 特用作物林產의 增 하고잇다 即 總督府로서는 벌 產等이 새로 檢討되고잇다 그 써 大體로 國防產業을 主眼으 中에서도 米穀의增產은 內地米 로 成案을보아 漸次進行의 途 에 壓迫을 加한다고하야 政治 的見地에서 中斷狀態에 잇섯스나 今後의 情勢로보아서는 增產의 必要가잇서 相當한程度의 準備가 업지못하리라는것이어서 方今 米穀課에서 案을 作成中이다 殖產局으로서는 產金에는 勿論할條件가업고 水產、其他石炭等 鑛產物에도 加一層 主力을 하게되여잇고 그餘에도 增產을爲한 一般施設中 緊急을要하는點에 着目케 되여엇다

米穀關係豫算
自治管理補助費豫算에서削減
檢查費와統制費뿐

十三年度 總督府豫算中 米穀關係新規增加額은 時局關係와十二年度 米穀事情으로부터 얼만한것이엇고 米穀檢查費十四萬三千七百圓、臨時米穀移出統制費六十六萬二千圓에 不過하다 米穀檢查額은 職員俸給과 새로行할 米穀檢查費用을 包含하엿고 臨時米穀移出統制費는 社還米四十五萬石에對한 補助十七萬二千圓及出廻期의 正租強制貯藏七十萬石 石當七十錢의補助費이다 그러고 今年에는 强制貯藏을正租만에限하기로하엿다 一方米穀自治管理에 要하는 補助費五百三十九萬四千餘圓이 減額되엿슴으로 來年度의 自治管理發動을當然하게못하는가하는 疑問을가진側도 잇엇스나 이는自治管理經費는 그것이發動되는 境遇에만 必要하고 不發動의境遇에는 豫算執項流用禁止의 豫算上措置로서는 豫算編成技術上不得已하다는 方針下에 豫算外에 計上한것으로實質上特別한變化는업는셈이다

朝鮮米實收
二十四日頃發表

朝鮮米의 實收高調查報告는 二十日부터 各道로부터 米穀課에 收合中인데 二十三日이 日曜日임으로 大體로보아 二十四日頃에 發表될모양이라 推測되고잇다 今年은 秋收期에도 天候關係가 大體로良好하엿스나 十一月中 慶南北、全南等地에 降雨가잇어서 多少局地的減收가잇슬會誤해도 全般的影響은 업슬모양이어므로 第二回의 二千六百三十萬石을넘하니리지는 안흘것이라는 觀測이有力하다

農會副會長後任

朝鮮農會副會長은 松井米倉社長의逝去에依하야 缺員으로되엿는데 會長朴泳孝侯의 任期도今年三月로되고 또前者辭意를表한일이엇는 一方朝鮮農會의 事業的 活動은 益益重要性을 累加하여가는 狀態에엇스므로 有力한 達觀한首腦部를 求하는 소리가 內外에 昂揚하고잇다 如斷한情勢下에 總督府에서도 松井副會長의 後任問題는 愼重히 하고잇는데 結局農會副會長은 上流의 經濟로부터 農會長이될 人物을 起用하게될것으로 候補者에는 殖銀頭取林繁藏 林業開發社長 矢島杉造等의 諸氏가下馬評에 올르고잇는데 三井榮長氏의 소리도들린다

物價急騰抑制緊要
日銀總裁協力要望

【東京】十七日 日銀主催金融懇談會에서 結城總裁로부터 物價問題에 對하야 如左히말하엿다

戰時狀態가 當分繼續될터인데 今日物價의 急騰抑制는 가장重要한데 多幸히 通貨方面에 順調로 걱정여엇다 그러나 物資配給方法에 適當치안흔지 投機가잇는지 하면 그結果 物의方面으로부터 物價昻騰을 招來할念慮가 업지안홈으로 金融業者도이런 事態를 惹起치안토록 注意할일이다

朝鮮內林檎 出荷를統制
中央機關設置要望

朝鮮內의 果實類生產高는 苹果六百萬圓、梨二百萬圓、葡萄六十萬圓、桃四十萬圓、梅百八十萬圓、其他 栗、胡桃等 合計 千二百三萬圓에 達하고 就中 苹果는 品質이優良하야 輸出 農產物로서 近年 重視케 되얏는데 統制가 適宜치못함으로 市場에서 非常한 不利를 蒙하는中이오 最近 業者間에 强力한 統制機關設置要望의 소리가 놉다 即 朝鮮內 苹果主產地에서는道營檢查를 施行하고 組合을組織하야 統制코잇스나 全朝鮮的統制機關이업스므로 出荷의 統制를 缺하고 그때문에 市價를 亂하는 實例가 不少함으로 昨年 京城에서 苹果病蟲害豫防에 關한 協議會가잇섯슬때 그席上에서 業者側으로부터 統制中央機關設置의 要望이잇서서 農林局에서도 研究를하얏는데 統制中央機關으로서는 同業組合이考慮되고 今年出荷期前에는 創立될모양이라한다

陸軍納入物의 規格統一研究

朝鮮貿易協會에서는 陸軍納入朝鮮產酒의 規格이 不統一하므로 이것을 統一코저 十九日午後一時부터 濟藤合名酒造場에서 陸軍御用酒造業者의 參集을 求하야 荷還包裝의 規格統一에 關하야 研究會를 開키로되엿다 二十日午後一時부터 同樣研究會를 開하야 陸軍納入의 貨物、醬油、味噌도 一層 開키리라한다

雜貨運賃引上
二月一日부터實施決定

朝鮮、商船、尼崎三社에서는 昨年末內地業者와 協議한結果 鮮間 雜貨運賃을 引上하기로 協定이成立되어 遞信局의 認可를得하얏슴으로 二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引上率은 全般的으로 一割이오 時局에 依하야 運賃負擔力이 增加한것에 對하야 最低二割最高三割의 引上을 行코저하는것이어다

滿洲特產
北鮮出廻激增

本年度의 滿洲特產輸出은 大連經由가 同港의荷役輻輳에依하야 滯滯하는結果 北鮮經由가激增勢를示하얏고 目下北鮮同盟會에서는 配船에奔走中이다 朝郵에서도 마레丸(七千三百噸)을 特產運賃協定하야 京濱航路에 當코잇다 特產運賃은 一、二圓을 割高로 決定하얏다

마이나마이트 極度品薄
一箱一圓引上

朝鮮內의 火藥販賣業者(朝鮮火藥等)는 昨年末內地業者와 協議한結果 朝鮮內의 마이트 一箱에 一圓을引上하기로 決定하고 一月부터 實施中이다 朝鮮內의 마이트需要는 諸鑛山의活況과 各種土木工事의 旺盛에依하야 本年은 二十四萬函이 豫想되고 昨年보다 三四割의 激增이豫想되는데 目下非常한供給不足으로 需要側은 相當히困難인모양이나 朝鮮內의 製造工場으로서 朝鮮火藥의 海州工場(日產二十噸)及 日窒火藥의 興南工場(日產三十噸)이 本年度完成되면 大體需給의圓滑을 期하리라한다

中旬對外 貿易入超
二千七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 一月中旬對外貿易概算調查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七〇、六五六
輸入	九七、六七一
合計	一六八、三二七
入超	二七、〇一五
入超累計	四三、五五九

昨年金買上高 一億八千萬圓
比十一年度四割五分增
比十年度實로八割增

【東京】金融懇談會席上에서 津島日銀副總裁는 最近의金融情勢에 對하야 報告하엿는대 注目하고잇는 昨年內의金買上額(產金法以前은 日銀)은 買入價格一瓦三圓七十七錢으로하고 總金額一億八千百餘萬圓(數量으로보아 約四十八噸)이엿다고 說明하엿다 이것을 十一年의 一億二千五百萬圓에 比較하면 四割五分增、十年度의 一億六百萬圓에對하야 實로八割增이다

農業의平均所得
五百五十六圓七十四錢
一九十一圓六十八錢增收

十年度農林省 農家經濟調查

【東京】農林省에서는 大正十年以來 道府縣農會에 委囑하야 農家로하야금 그收支의 實情을記帳케하고 經濟生部에서 그成績을 集計하야 農家經濟調查로서 每年發表하고잇는데 昭和十年度農家經濟調查書를 十七日에 如左히 發表하얏다 我國에잇서 豫算잇는 唯一의 農家經濟調查로서 注目된다

一、農業總收入

	自、小、自小作平均
米 收穫	六三、三五五
比金額	[illegible]
麥 收穫	八六石
比金額	[illegible]
稍繭 比金額	[illegible]
蔬菜金額	八七·四四
果實同	二六·三五
牛同	一五·五三
馬同	二·七七
豚同	八·三三
鷄及鷄卵同	三七·六一
藁細工同	一七·一三
林產物同	一·九九
其他同	一二·七三
現物增減價額	八三·九八
動植物增減價額	四·九二
蔬菜以下小計(金額·比率)	九·九二
合計	一、一四二·〇九

即 農業總收入은 三者平均一戶當千百四十二圓九十錢으로 이것을 前年의千十五圓七十三錢에 比하야 百二十六圓二十六錢의增加이다

二、農業所得

	自、小、自小作三者平均
農業總收入	一、一四二、〇九
農業經營費	四八五、三五
農業所得	六五六、七四

即 農業總收入으로부터 農業經營費를 控除한農業所得은 三者平均一戶當 六百五十六圓七十四錢으로 前年의 五百六十五圓六錢에比하면 九十一圓六十八錢의增加이다

三、諸負擔總額

	自、小、自小作三者平均
國稅 計	五·三一
比率	一%八三
道府縣稅 計	一六·四〇
比率	三六·五五
市町村稅 計	二三·一六
比率	五〇·六二
租稅總額	四四·八七
其他負擔	一一·六五
諸負擔總額	五六·五二

四、負債

	三者平均
負債 年度始	二八六·六二
年度末	二九八·八八
增減	一二·〇六
農業用	九·二五
家事用 年度始	三〇·五九
年度末	三二·〇七
增減	一·五二
計 年度始	六二三·三九
年度末	六二一·三九
增減	△一五·〇七
年度末 增減	一〇·六四 一·三九

即 諸負擔總額은 自小作의三者平均一戶當五十六圓五十二錢으로 前年의五十六圓九十錢보다 三十八錢의減少이다

即 農業負債、家業諸負擔及家事諸負擔合計한 諸負擔總額의三者平均一戶當百二圓六錢이 增加되엿스나 家事用은 廿八圓五十二錢의 減少이오 結局 總計에잇서 十五圓七錢의 負債減少이다

即 農業收入과 農業所得은 農產物價의 値上으로 모다 前年에 比하야 增加되고 一方 農家諸負擔은 減少되어 조금이나마 農家는 負債를 償還하게까지 그經濟狀態가 好轉한것을 示하야 注目되는것이다

今日의市勢(二十日)

株式 漸落步調 不勢

前場低迷 昨後場下落이뒤를이어 今前場은 東新이百六十七圓七十錢에까지 少强이엇스나 戾賣物로 低迷狀을呈하야 結局 東新六圓六十錢、鐘紡二百七十二圓七十錢、大新九十四圓二十錢、滿重八十四圓四十錢 朝取九十四圓五十錢 朝新三十六圓十錢에不勢大引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百六十六圓五十錢 鐘紡二百七十二圓五十錢 大新九十四圓三十錢朝新三十六圓二十錢에 不勢寄後新低價로續落大引

目前戾賣人氣 (錦)東新과 鐘紡이 時日로整理치안코 갑스로 整理를 시작하야 買疲勞의 投物이 갑작어나와 急落되엿슴으로 中勢觀까지 動搖가생기여 長期戰 議會念慮 統制重壓等을 새삼스럽게 걱정케되엿다 目前新規突發

國債 押目買로 强調

【東京電話同盟】堅實한 金融狀態를 反映하야 押目에는 買氣가잇서 內地價는 大概五錢續進 氣配이나 六分半不變、五分半은買어젓다

第三、五分 一〇二、四五 物回四分 九八、一〇 佛貨四分 九六、八五

期米 過高反動 低落

前場反落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八十一錢인 四丁反落을 傳하고 當限은 一圓〇三錢인 二丁低、中限은 一圓八十九錢인 三丁低하고 當은 三十二圓二十六錢인 昨止同樣으로 場을始한後 阪地八

市場六感

(株)……實疫에다가代引重壓이로 東京에서부터 綿絲된市勢는 겨우下支되엇스나 떠러진材不味▲突込警戒이기는하나 當分玉整理進行일모양 어려고 보니目前戾賣人氣優勢 ▲議會再開를 압두고多事多難을 想하는만큼 急好轉은 難望▲ 香高의實現이 不能하얏던만큼 投機性을가진 株의整理가오고 만것▲大勢는 樂觀이나 이러케되고보니 統制經濟下의 投機要素이다시 問題되는모양

(米)……市勢는 四十七丁의奔騰을告한後 二十丁의反落을告하엿다 此는市勢의原則이라하겟지마는 今明間에 發表될實收高의增減如何를 몰아 一波紋을豫想한모양◆果然大減이지 엇든 第二回豫想과의 別增減이 업슬모양 如何튼 今明間의 實收高發表 三、四日間의 市勢의步調는 注目되는것이다 ▲그러나 市勢로보아서는 아주도又復一高層이 未知이지만 ▲그러나 五、六個月을通한 今後의 大勢는 一見不安이잇지안흔 比過에서 相當反動이잇지안흘가하는 不無 (鈴山)

大勢樂觀根據

長期戰과 戰時體制强化가 겨저로서 議會再開切迫을앞두고 增稅의 負擔까지겨처서 市勢는 急轉惡化되고 越年來의實玉이 投出되어 氣味不良한터이나 今寂하게 생각하면 北支中支의 明朗化는 期待할수잇는일이오 長期戰이 實面으로보면 新政權治下의 第二回豫想이란고도 할일로 報告 期戰가 市勢에 안키다 新政權樹立에伴하는 軍需工業에로 生產力의 擴充을 中心으로한統制이니 增强된 中心을 일이다 大勢는 依然樂觀할수 잇다는것이 强氣의 根據인것갓다

政府政策注目 三次買上有無

米穀應急措置法案에依한 買上은 最高公定米價의 一割下値가 아니면 發動을 하지못하게된다 即最高公定米價인 卅五圓四十錢은 茨城縣의三等米를標準한것이므로의 堂島正米三等米로 換算하면 最高價格이 卅七圓四十錢에 該當하게되며 一割下値卅三圓六十六錢에 該當하게된다 그러므로 現下堂島先限卅四圓八十錢은 一割下値에比하야 一圓以上이나 割引上位에엿스므로 到底히 應急買上을하지못하게되어 結局政府는 季節的買上에依하야 百萬石買上을하기로된것이다 그런데 第一次買上을 完了한後에 또季節買上을하지안흘지 此가問題되는바인데 一部商談에依하면 政府는 今後高米價의防止對策으로보아서 第三次까지의 季節的 買上을하리라고 主張하면 一部의說은 季節的 買上은 今回로서끗을막고 市勢의趨移에딸아 應急措置에依한買上을 할것이라고도하다 果如何?

斷定的의採合

昨朝政府米百萬石買上發表를 接하고 一氣四十七丁의 突飛的高値를示한 當地市勢는 東京其他各地의 伸暢에比하야 更히 伸悵하지못하고 賣方의買戾勢를 보이고잇다 그러하면 買上에對한 行動은 旣히一巡되엇다할수잇스므로 以上의 高價는 當分間期待키難하갓고 又는一時大激減說을傳하든 內地實收高자 第二回豫想과 別增減이업슬것이라는說이 傳하여 滿嶺하여지지안흔 反하야 不伸不押의 商勢로는 今明日間에 實收高를 發表하게되므로 市勢는 樂觀의感을呈하나 그러나모두 測如오 具體的이아닌만치 此邊保合을示하고잇다 同今明日間에 待할것이엇다

後場塞割

後場은 三十二圓三十四錢인 十丁低保合 二十六錢의 四丁低로 된後 阪地九節七十六錢止七十七錢을 示하고 十錢安 三十二圓三十二錢에 五節三十二錢으로 前場보다 二十錢安의 低價에止하엿다 ... 一圓〇六錢에 四丁低로 塞割하여 二十六錢

米正 實氣一息 保合

京城穀强 期米는 漸高反騰을示하엿스나 正米는 實勢로 保合하엿다 人氣로하야 繼十錢高로 發表되엇다 四等三一、八〇 四三等 三一、六〇 一等白米 三三、一〇

仁川伸悵 人氣의 注目이던 買上도 突然發表로 一齊奔騰하얏스나 最近發表인 內鮮實收의 表待로 價位로보아 買付치안코 各地消費의伸縮와 相俟하야 飛付치안어 十錢高의반이엇다 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四等三一、六 銀坊主三一、八〇 四等三一、一〇 四等 〇 多摩錦三等三一、二〇 一等白米四一三、一 〇 ㊀一三、〇〇

釜山不變 內注不振으로問屋側은 價位觀의買讓躊躇態度를示하나 產地買上好感으로 賣氣가 强하야 場面은不賓不賣의 商狀이엇다 ㊀穀良三等三一、九五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一、九〇

大邱保合 買上發表로 四十錢高로 猛反騰을 演한市勢도 吹價狙의 賣物이잇고 定期反落으로此邊勢가 削減되엇다 ㊀穀良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三一、八五

群山軟調 市中在庫豐富이나마 今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發表할 實收量보기까지는 積極的으로 賣叩하지안코 買方도 躊躇하는 狀態를 過高反動으로十錢軟調이엇다 ㊀銀坊主 三一、九〇 三一、七五 一等白米一三三、二〇

木浦保合 一時沸騰되던人氣도 本日은 冷靜케되어 市勢도前値同樣으로 不動이나 이것은本日부터 三日間發表될 實收結果待에 依한것이다 雙方共히 波瀾을앞두고 緊張場面을 呈하엿다 ㊀銀坊主 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三、〇五

全朝鮮耕地賣買價格 ⑥

다、地方別의比較

實取小作料를 地方別로 通觀하면 中鮮地方이 그다음이고 南鮮地方이 上位를 占하고 西鮮及 北鮮地方은 低位이다

各品等畓田地方別比較

地方	畓 上	畓 中	畓 下	田 上	田 中	田 下
南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等畓田地方別累年比較

年度	南鮮	中鮮	西鮮	北鮮	平均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部及 南鮮地方이 上位를 占하고 西鮮及 北鮮地方은 低位이다 中等畓의 實取小作料는 前年과의 比較에서 大差가업스나 中鮮地方의 增加를 示하엿다

公課其他負擔

가、百坪當公課及其他負擔

公課其他의負擔은 畓은 南鮮 各支店 所在地方을 最高로하고 北鮮地方의淸津、會寧 最低로하고 田은淸津、江界各支店所在地方

年度	畓	田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增減比率	[illegible]	[illegible]

百坪當公課負擔其他

本調査의 畓地百坪當公課及其他負擔은 前年의 比較하면 大差가업다

나、前回調查와比較

年度	上	中	下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다、地方別의比較
百坪當公課其他負擔地方別比較

年度	田
昭和三年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今日財界 二十日

◆米(單位十錢) [illegible]

◆株 [illegible]

海外經濟 十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京城綿絲布市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滿洲商況 [illegible]

◆鰯油粕·粉蔘◆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二十日)◆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東京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期米 趙俊鎬取引所

京城 仁川 益 金益證券 益康